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1832-0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궁금
하면

애
짜
클
릭!

남택진 글 | 유정연 그림



통계청



발간사

생활 속 궁금증을 '통계'로 찾아볼까요

'통계'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학창시절 반장선거, 각종 여론조사, 방송프로그램 시청률, 유튜브 구독자 수, 물가 변동 등 생활 속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미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거나 각종 계획 수립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통계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프, 통계도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궁금하면 '통계' 클릭!」은 누구든지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여 생활 속의 궁금증을 통계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 경제, 환경, 복지 분야별로 친숙한 주제를 선정하여 일상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통계 이야기를 짙막한 소주제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나이팅게일이 통계수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장미도표'를 제작하여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 시킨 사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편의점에서 1인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 청년들이 요즘 선호하는 직장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들, 배달음식 중 어떤 종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 숨어있는 통계를 찾아보고 풀어가는 '통계' 클릭 여행을 마치고 나면, 궁금증을 통계수치로 확인하고 명쾌한 답변을 얻게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통계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통계가 좀 더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풀어가며 글을 써주신 작가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계청장 이승경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새로 사귀 친구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은 정작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때?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니?
그 친구는 나비 수집을 하니?”

그 대신 이런 질문을 한다.

“그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인데? 몸무게는 얼마야?
그 친구의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니?”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어른들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숫자에 대한 시각 차이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이들 눈에 어른들은 숫자만 보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지루한 숫자와 그래프들을 어른들이 도대체 왜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사실 어른들은 당장 눈앞의 숫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숫자의 벽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서 턱 막히게 되지요. 통계라는 것은 더더욱 낯선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외국어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들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듯 말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숫자와 통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숫자들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들이지요. 따라서 여러 가지 숫자와 자료를 이해하는 능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는 빅데이터·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와 경제의 변화, 다양한 패턴과 트렌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통계라는 도구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그 통계가 만들어진 맥락과 과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책은 숫자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각각의 통계들이 어떤 본질을 가리고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보았습니다. 하나의 키워드에 얽혀있는 다양한 소주제들은 통계라는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상자를 살짝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세상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맛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집필하는 내내 독자분들께 드릴 선물상자를 준비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통계청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좋은 책을 만들고자 함께 머리 맞대어 준 한국통계진흥원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은영과 예쁜 딸 고은이가 늘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권진



차례 Contents



· 통계가 뭐예요? 7



01 인구

· 시간여행	11
· 인구	13
· 저출산·고령화	17
· 1인가구	21
· 기대수명	25
· 반려동물	29
· 통계 웹툰	33



02 경제

· 시간여행	39
· 미래직업	41
· 돌봄경제	45
· 소득·소비	49
· 온택트	53
· 지역경제	57
· 통계 웹툰	61



· 부록

122



03 환경

· 시간여행	67
· 기후변화	69
· 대기오염	73
· 친환경	77
· 탄소중립	81
· 지속가능성	85
· 통계 웹툰	89



04 복지

· 시간여행	95
· 분초사회	97
· 워라벨	101
· 여가생활	105
· 건강한 삶	109
· 더 나은 사회	113
· 통계 웹툰	117

통계가 뭐예요?

통계란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요. 통계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사회현상을 분석하거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통계(statistics)라는 말은 라틴어 'status'에서 왔어요. 'status'는 국가라는 뜻인데요.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지요? 과거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거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사람의 수, 땅의 넓이 같은 자료들을 숫자로 꼼꼼하게 기록했었다고 해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통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빅데이터와 시시대로 접어들면서 통계는 우리에게 더욱 필수적인 것이 되었어요. 현대에는 통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통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줘요.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지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줘요.

둘째,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도시 계획이나 인구정책 등을 세우고자 할 때, 통계는 인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돼요.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율, 비만율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업 부진 원인 등을 분석하여 더욱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넷째,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매년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기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이러한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이렇게 통계는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 계 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을 담당하고, 통계기준을 설정하며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통계는 정부의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의료, 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또한 통계는 미래 사회 변화를 한발 앞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이 인구

01 인구

- 시간여행
- 인구
- 저출산·고령화
- 1인가구
- 기대수명
- 반려동물
- 통계 웹툰

모르는 통계 정보? 코봇에게 물어봐!

**안녕? 나는 코봇이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봐!**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들어가면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 로봇인 '코봇'을 만날 수 있어요. 모르는 통계 정보나 통계 용어가 있다면 코봇에게 물어보세요.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표와 통계 용어를 바탕으로 궁금한 정보를 모두 알려준답니다. 특히 모르는 통계 용어 앞에 #을 붙여서 물어보면 용어의 뜻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물론 아직은 열심히 공부 중이라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요. 우리도 코봇과 함께 통계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볼까요?

시간여행



로마 시대에도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인구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병사를 모으거나 세금을 걷으려면 몇 명이 사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국가와 거의 함께 탄생했어요. 아주 오랜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인구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지요.

인구조사를 뜻하는 단어 센서스(Census)는 로마어 '켄수스'에서 유래되었어요.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들이 살던 대제국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구조사가 필요했는데요. 세금, 병역, 선거 등을 위하여 로마인의 공식적인 명부가 필요했고, 이것을 만드는 켄소르(감찰관)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해요. 4~5년마다 2명의 켄소르가 선출되어 인구조사나 정부의 재정을 감독하는 일 등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인구조사가 있었을까요? 고려, 조선시대에는 '호구조사'라는 이름으로 인구를 파악했어요. '호'는 주택을 '구'는 인구를 의미하지요. 이것을 담당하는 관청을 '호조'라고 하는데 인구, 세금, 토지 등을 관리했다고 해요. 지금의 통계청과 국세청의 역할을 합친 것과 비슷할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는 '헌민수'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인구 통계를 임금님께 전달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임금은 백성을 받들어 존중한다는 뜻에서 절을 하며 헌민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인구조사는 로마에서 조선까지,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대적인 인구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 실시 되었어요. 지금은 5년마다 통계청에서 인구 주택총조사를 하고 있지요.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구를 파악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 통계 조사 중에서도 인구총조사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은 인구총조사가 실시된지 무려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얻어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을까?

인구

“우리 동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는 어떨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통계예요. 통계는 우리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길을 만든 친구이지요. 그럼 통계와 함께 세상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



#인구 (Population)

인구란 나라나 지역에서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사망, 출생, 혼인, 이혼, 가족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이 인구에 영향을 줍니다.



① 전 세계 인구 수는?

세계인구전망(2023년)

국가	인구(명)
세계	80억 2,500만명
인도	14억 2,863만명
중국	14억 1,071만명
미국	3억 3,491만명
인도네시아	2억 7,753만명
파키스탄	2억 4,049만명
나이지리아	2억 2,380만명
브라질	2억 1,642만명
방글라데시	1억 7,295만명
러시아	1억 4,383만명
멕시코	1억 2,846만명
에티오피아	1억 2,653만명
일본	1억 2,452만명
⋮	
대한민국	5천 171만명

자료: UN '세계인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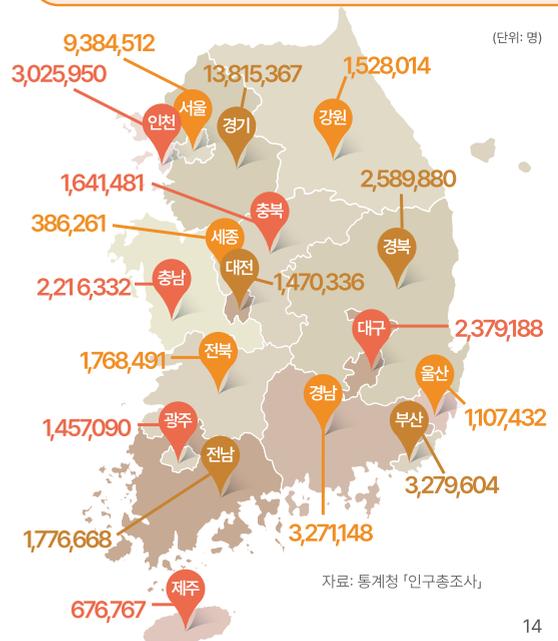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명을 넘어섰어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통 중국을 떠올리는데요. 2023년부터 중국이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도에게 말이죠. UN의 발표에 따르면 총 237개 국가 중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2,9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한편 대한민국은 인구 약 5천 200만명으로 2021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지요.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줄고 경제 성장이 느려지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②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2023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 200만명 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우선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약 1천 382만명가량 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약 938만명, 이어서 부산, 경남이 약 330만명으로 조사되었어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지방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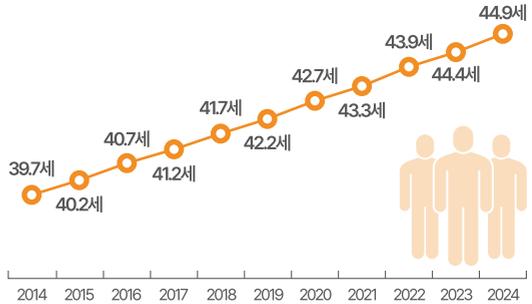
인구총조사 인구(2023년)



③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는?

10년 전 대한민국의 평균연령은 39.7세였습니다. 2024년에는 마흔 살을 훌쩍 넘긴 44.9세가 되었지요. 남성의 평균 연령은 43.7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6.1세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 일까요? 유일하게 30대의 평균연령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38.8세)가 가장 젊은 지역이에요. 한편 가장 연령이 높은 지역은 전남(48.7세)으로 조사되었어요.

10년간 대한민국 평균연령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추계

중위연령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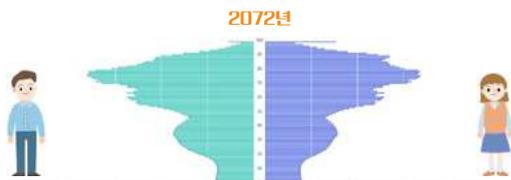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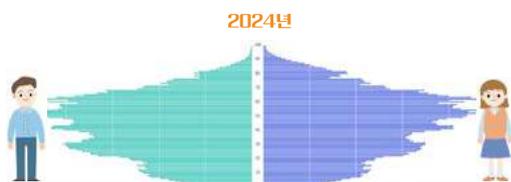
! 평균연령 vs 중위연령

평균연령은 전체 인구의 연령을 모두 더해서 총인구 수로 나눈 값을 말해요. 반면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말하지요. 중위연령은 인구의 연령 특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이 순으로 줄을 짝 세워 볼까요?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몇 살쯤 될 것 같나요? 1974년에는 줄의 정가운데 있는 사람이 19.2세였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이라면 50번째 사람이 19.2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중위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중위연령은 매년 꾸준히 올라 2024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무려 46.1세가 되었고,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63.4세로 예상됩니다.

4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

인구피라미드



인구피라미드란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예요. 우리나라의 시대별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볼까요? 먼저 1960년의 대한민국은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출산율이 높아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았지요. 사망률도 높아 인구 피라미드는 밑이 넓고 꼭대기가 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양을 보였습니다.

요즘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4년의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인구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중년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피라미드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유소년층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구피라미드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따라서 인구피라미드 모양은 아래쪽의 유소년층이 훌쩍해지고 위쪽의 고령층이 두꺼운 모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통계시각화 콘텐츠예요. 지역별 인구, 고령화, 다른 나라와 인구 비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비상사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 100년 전의 우리나라 인구는 1,300만명 정도였다고 해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2012년에는 5,000만명을 넘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저출산 (Low birth rate)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령화 (Aging)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년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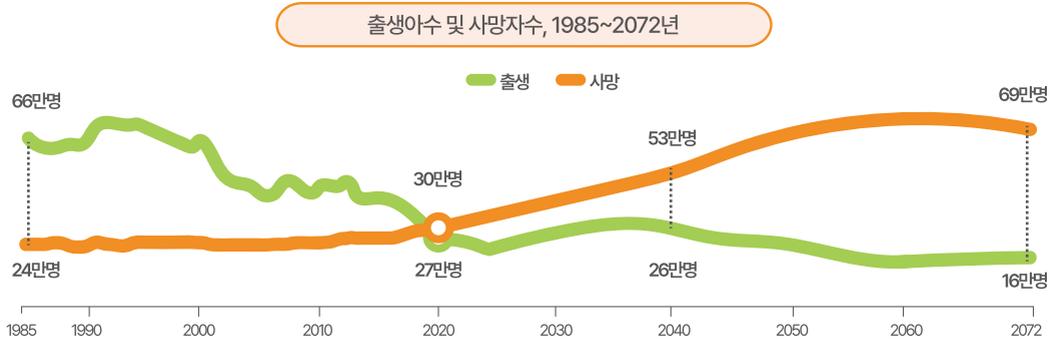


① 인구절벽이란?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많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지요.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로 고령 인구의 비율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구절벽 현상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고령화에 의한 복지 부담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②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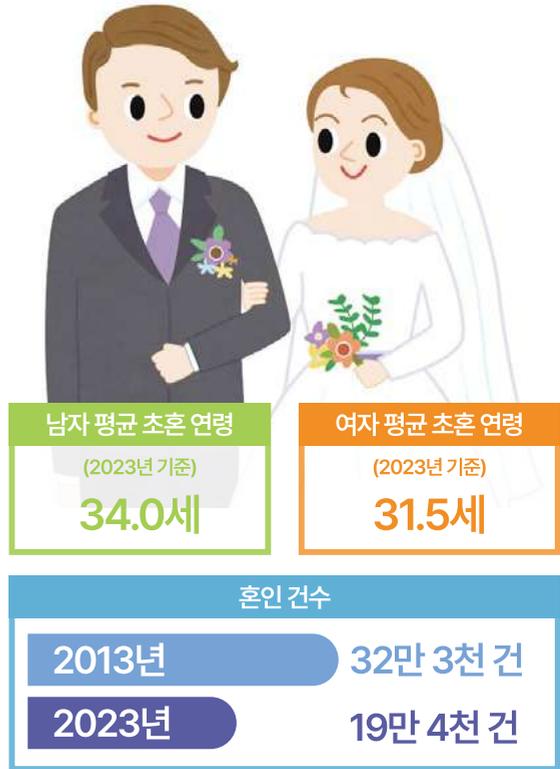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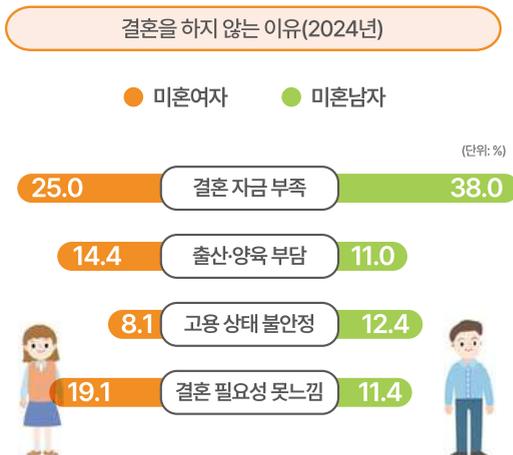
과거의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아서 꾸준히 인구가 늘어났었지요. 하지만 2020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졌어요.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2020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③ 결혼하는 사람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까요? 2013년 무렵에는 약 32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혼인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10년 후인 2023년에는 약 19만 건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무려 13만 건가량 줄어든 수치이지요. 한편 결혼하는 나이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남성은 34.0세, 여성은 31.5세 무렵으로 조사되었어요.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정도 늦게 결혼하고 있네요.



자료: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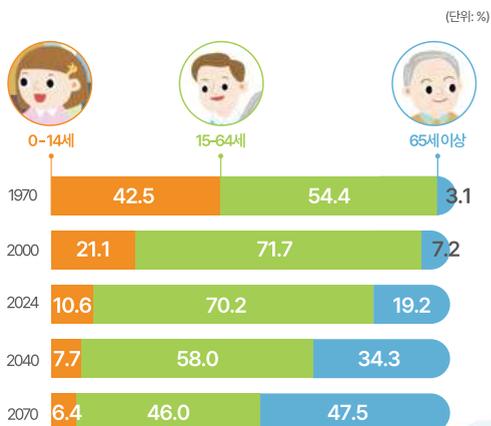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의 입장이 약간 달랐는데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남자는 결혼 자금 부족(38.0%)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12.4%)가 뒤를 이었지요. 미혼여자의 경우 결혼 자금 부족(25.0%)과 함께 결혼 필요성 못느낌(19.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4 앞으로의 인구 전망은?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는 어떻게 변할까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2024년 19.2%에서 2070년 47.5%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70년에는 3,718만명 선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미래의 인구를 알고 싶다면? -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의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참고해보세요. 장래인구추계란 향후의 인구 변동을 예측하는 통계로 장래인구를 예상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출생이나 사망 그리고 국제이동 추세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의 인구를 전망하고 있어요.

1000만명이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 학업으로 홀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듯해요. 이제 두 집 건너 한 집은 1인가구라고 하는데,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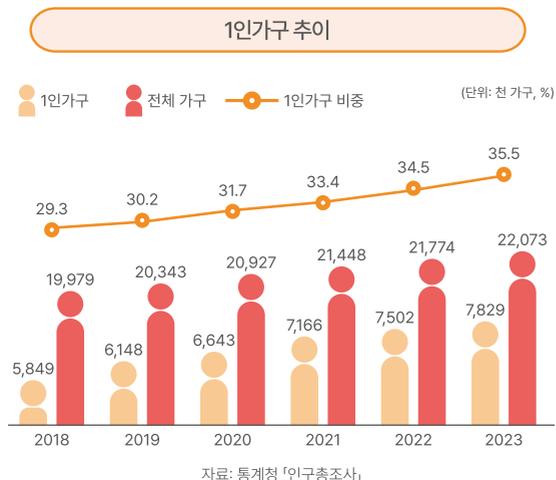


#가구 (Household)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크게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1인가구란?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 수는 늘고 있대요. 그 이유는 바로 1인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1인가구란 혼자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783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해요.

② 1인용 제품이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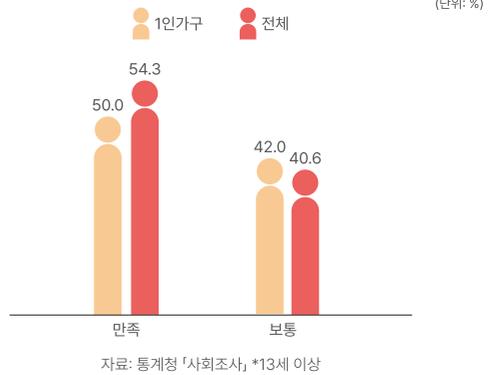
혼자서 대용량 상품을 사게 되면 음식을 남기게 되거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요즘 편의점에서는 이러한 1인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소용량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쌀은 20kg의 큰 포대를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요즘엔 무거운 쌀 포대 대신 150g짜리 소포장 쌀이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커다란 통수박보다는 한 입에 먹기 편한 조각수박이나 미니수박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1인가구는 이제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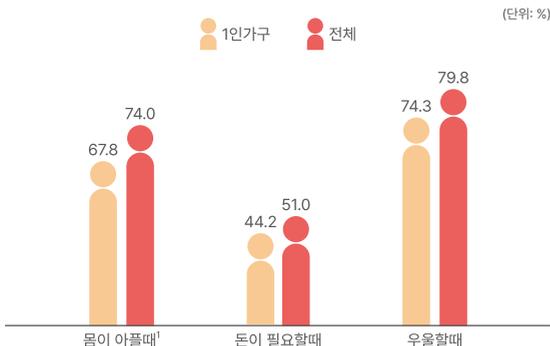
③ 생활 만족도는 어떨까요?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어떨까요?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50.0%였습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만족도(2023년)



사회적 관계망(도움 받을 사람 있음,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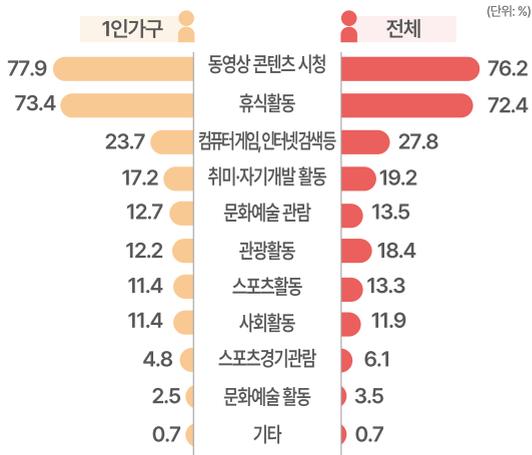


살다보면 가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어떨까요? 2023년 「사회조사」 결과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67.8%),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44.2%),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74.3%)로 나타났어요. 앞으로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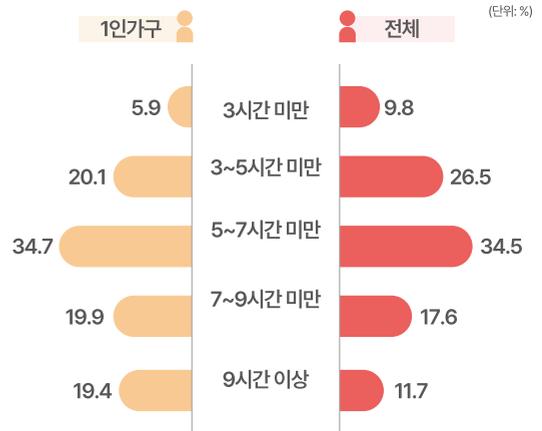
④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주말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바로 동영상 콘텐츠 시청(77.9%)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휴식(73.4%),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3.7%) 등이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전체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한편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1인가구의 경우 평일 4.5시간, 주말 6.3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체가구에 비하면 여가시간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최근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하니 더욱 다양한 활동들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가활동 비중(주말, 2023년)



평균 여가시간 비중(주말, 2022년)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똑똑~ 조사하러 왔습니다! - 통계조사원

우리 생활을 조사하고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조사될수록 올바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요. 어떤 항목은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통계조사원이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면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때,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기대수명

“십장생도는 영원히 존재하거나 오래 산다고 생각되는 자연물을 그린 그림이에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한 통계가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미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 수 있게 될지 함께 알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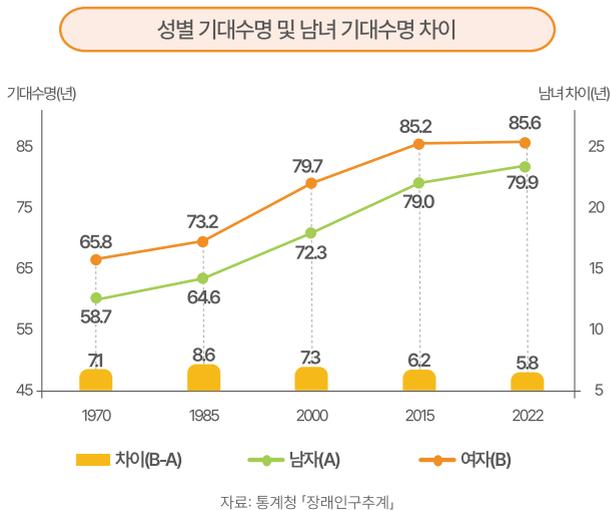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0세의 기대여명'을 나타냅니다.



① 우리의 기대수명은?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100세 시대에 살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62.3년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82.7년으로 약 20세 이상 늘었지요.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79.9년, 여자는 85.6년 정도인데요. 이것은 OECD 평균보다 남자 1.9년, 여자 2.4년이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된 만큼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건강 관리와 같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나 노인 복지 정책 같은 사회적 지원도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더욱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평균수명? 기대수명!

기대수명이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할 때, 올해 태어난 출생아가 앞으로 몇 세까지 살 것인지를 의미해요.

예전에는 평균수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으나 기대수명을 사망자의 평균 연령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보다 정확한 용어인 기대수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②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00세 이상 산 사람을 '센티네리언'이라 부른다고 해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오래 산 사람들을 '슈퍼센티네리언'이라고 한답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프랑스의 잔느 루이즈 칼망(1875~1997)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120살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1875년 프랑스 알레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1997년까지 생존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③ 장수국가를 알아볼까요?

OECD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녀가 각각 달랐는데요. 남자는 '스위스'(81.6세), 여자는 '일본'(87.6세)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남자 79.9세, 여자 85.6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요. 한편 기대수명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미국 등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기대수명이 100세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OECD 주요 회원국의 성별 기대수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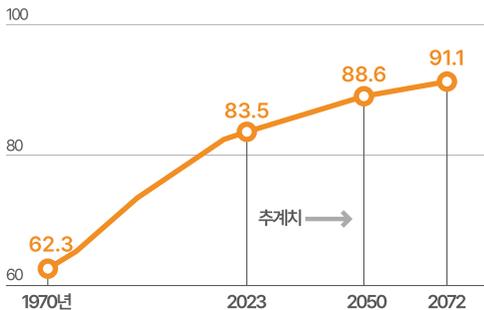
국가·기준연도	남자(A)	여자(B)	남녀차이 (B-A)
대한민국 2022	79.9	85.6	5.8
일본 2021	81.5	87.6	6.1
스페인 2022	80.4	85.9	5.5
스위스 2022	81.6	85.4	3.8
호주 2021	81.3	85.4	4.1
⋮	⋮	⋮	⋮
헝가리 2022	72.7	79.5	6.8
미국 2021	73.5	79.3	5.8
멕시코 2021	72.5	78.2	5.7
OECD 평균	78.0	83.2	5.2

자료: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23. 11. 추출)」

④ 앞으로의 기대수명은?

한국인의 기대수명 추이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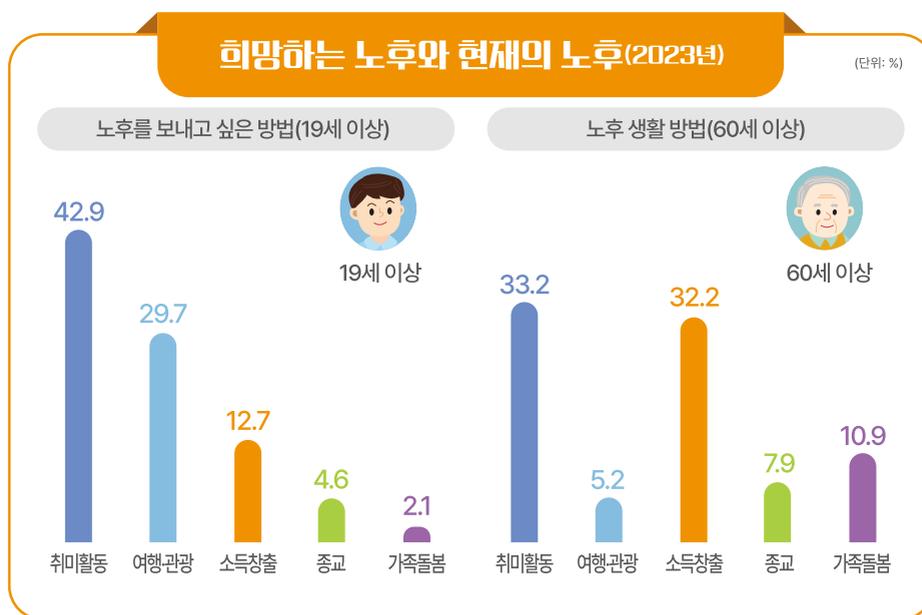


주: 2023년 이후는 추계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대수명은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로 꾸준히 늘어왔어요. 1970년 62.3세에서 2023년 83.5세까지 무려 21년간 높아졌는데요. 그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기대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기대수명이 88.6세, 2072년에는 기대수명이 91.1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물론 이는 계산을 통해 추측한 결과이므로 사회의 변화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요.

⑤ 100세 시대를 잘 맞이하려면?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훨씬 중요해졌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하며 지내고 싶어할까요? 19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취미(42.9%)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행·관광, 소득창출 순이었지요. 그렇다면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 역시 취미(33.2%)가 가장 많았고, 소득창출, 가족 돌봄, 종교활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취미 활동과 여행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소득활동과 가족 돌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그리고 여가 활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기대수명 vs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해요.

반면 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의미하지요. 그럼 0살인 아기는 어떨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이 똑같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우리 주변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지요.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볼 때면 가끔 키우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복실복실하고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힘든 날에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동물을 말합니다. 개, 고양이, 토끼, 금붕어 등 그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반려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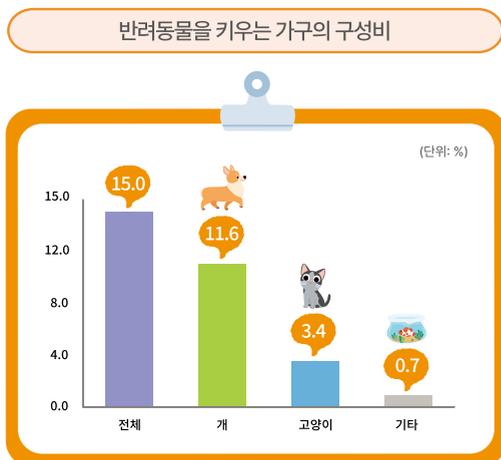


① 애완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해요.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식되며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5%인 312만 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신규조사항목에 '반려동물'이 추가되었어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반려동물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지요.



② 어떤 동물을 많이 키울까?



※ 복수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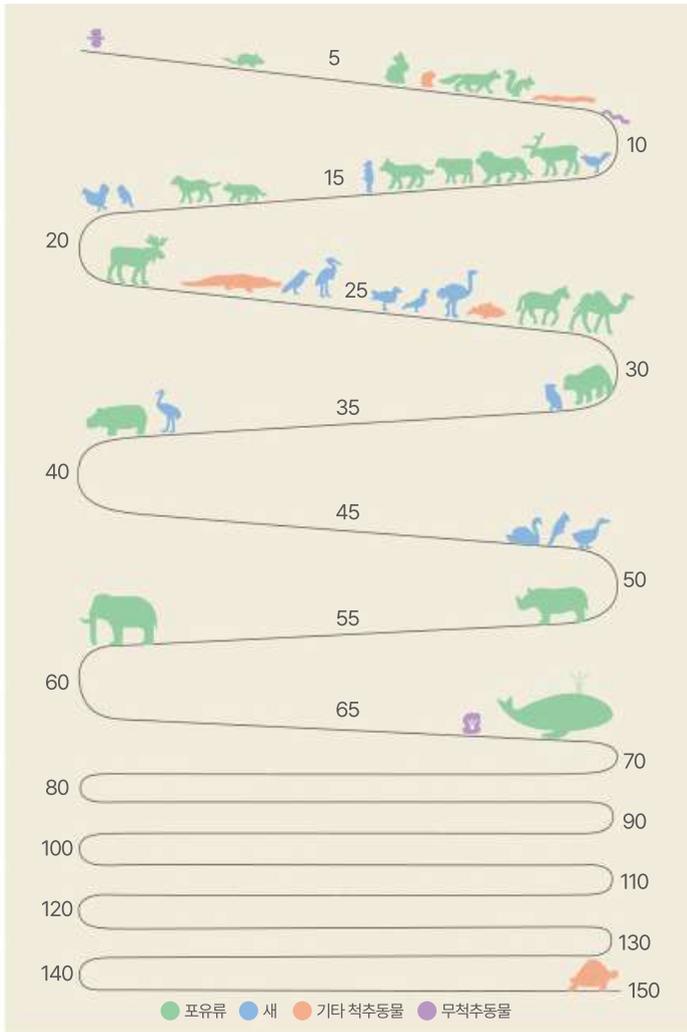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법률에서 정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을까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개는 11.6%, 고양이는 3.4%로 조사되었어요. 그 외의 동물을 키우는 가구(0.7%)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만큼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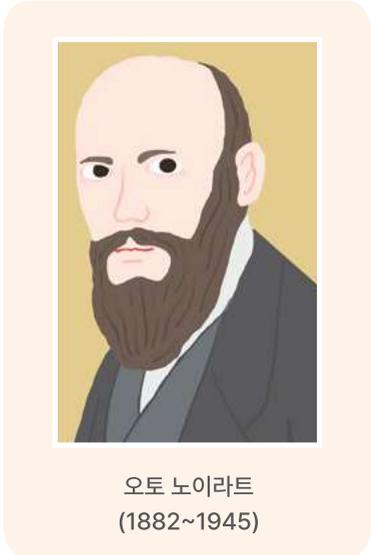
③ 동물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

비엔나의 박물관 관장이었던 오토 노이라트는 박물관의 전시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랐다고 합니다.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고민 끝에 그는 그림, 도형, 색깔 등을 이용해 복잡한 정보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의 대표작으로 '동물들은 얼마나 오래 사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동물의 수명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하고 순서대로 배치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포스터이지요. 오토 노이라트의 이러한 노력들은 이후 인포그래픽으로 발전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물들은 얼마나 오래 사나?



자료: Otto Neurath의 'How Long Do Animals Live?'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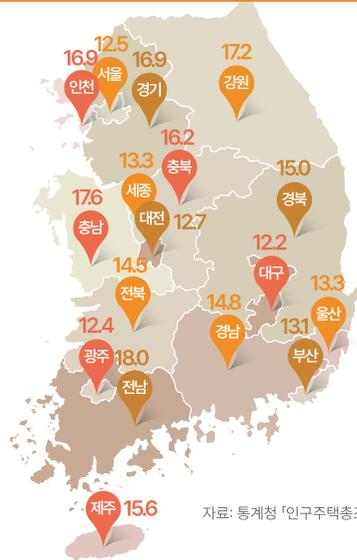
인포그래픽이란?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보(Information)와 그림(Graphic)을 합친 말이에요. 복잡한 데이터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지요. 특히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4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동네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시도별로 조사해보니 전남(18.0%)이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충남(17.6%)과 강원(1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반려동물을 기른다면 어떤 동네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산책할 만한 공원과 동물병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주 산책을 해야 하니 공기도 비교적 깨끗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찾고 싶다면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동네」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여러 지표를 고려하여 반려동물과 살기에 가장 좋은 동네를 찾을 수 있어요.

지역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구성비 (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반려동물과 살기 좋은 동네를 고를 때 필요한 지표들



나에게 꼭 맞는 동네를 찾아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살고 싶은 우리 동네」는 통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주거지역을 찾아주는 서비스예요.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이사지역을 찾아주지요. MZ세대, 1인가구, 반려동물가구 등 총 8가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호 지역을 추천해주고 관련된 통계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살고 싶은 우리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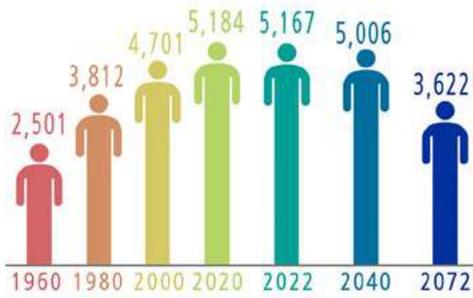
모바일 접속

통계 웹툰

미래의 우리나라 인구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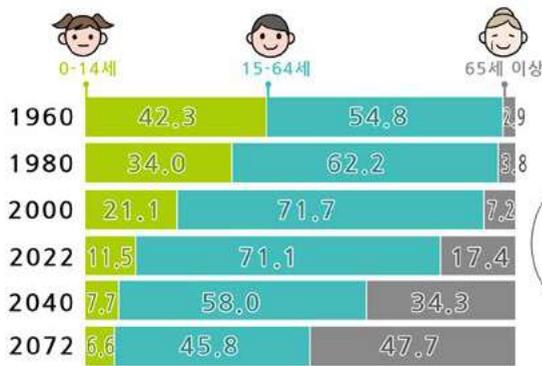
장래 인구(2022년 추계 기준, 단위:만명)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12.18. 확인)」



연령계층별 구성비(2022년 추계 기준, 단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12.18. 확인)」



장래 확령인구(2022년 추계 기준, 단위:만명)



memo



02

경제

02 경제

- 시간여행
- 미래직업
- 돌봄경제
- 소득·소비
 - 온택트
- 지역경제
- 통계 웹툰

시간여행



자장면이 100원인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엔 자장면이 얼마였을까요? '통계로 시간여행'을 활용하면 그때 그 시절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우선 2025년을 기준으로 50년 전인 1975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먹었던 자장면 가격인 6,000원을 입력하면, 물가지수가 반영되어 자동으로 가격을 계산해 줍니다. 사실 실제 가격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가격을 체험해볼 수 있지요. 궁금하게 많으니 지금부터 여러 상품의 가격을 입력해볼게요!



물가체험 "자장면"



최근 드신 **자장면**의 가격을 입력하시면 해당 품목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1975년의 **자장면** 가격을 산정해드립니다. 실제 가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행자님이 드신 **자장면**의 가격은?



6,000 원

1975년
자장면 141원



현재

자장면 6,000원



1975년의 자장면 가격이 141원으로 나왔어요! 그 시절에는 100원짜리 동전 2개만 가져가면 자장면도 사먹고, 마시고 싶은 음료까지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의 가격과 옛날의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바로 '물가' 때문이에요.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년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라면 아이스크림의 물가가 오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는 보통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자장면 한 그릇이 100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6천원 정도 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월급, 가게 운영비와 같은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거나 은행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 등 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혹시 몇 년 전의 물가가 궁금한가요? 부모님이 어렸을 적 버스 가격은 얼마일지, 짬뽕이나 냉면의 가격은 또 얼마였을까요? 궁금하다면 함께 '통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통계로 시간여행

부모님 어린 시절에는 우리 나라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기온은 어땠고, 버스는 얼마였을까? 그때 그 시절이 궁금하다면 국가통계포털의 '통계로 시간여행'을 활용해보세요. 원하는 연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통계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사진과 이야기를 추가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상상이 현실로?!

미래직업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거나, 가상현실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드론 조종사는 하늘을 통해 물건을 배달해주고, VR 디자이너는 가상현실 속에서 멋진 공간을 만들어줘요.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더 생겨날까요?”



#직업 (Job)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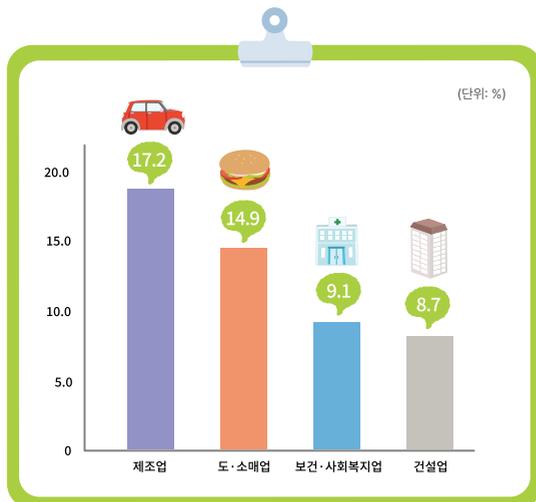
① 사라진 예전의 직업들?

사회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들이 있어요. '버스안내원'이라는 직업을 들어보았나요? 버스안내원은 버스의 문을 여닫거나 정차역을 알려주는 것을 도와주는 직업이에요. 현재는 버스안내원이 하는 일이 모두 자동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또한 '전화교환원'이라는 직업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화를 할 때 교환원이 원하는 곳에 연결을 해주어야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외에 인력거꾼, 보부상, 영화간판 화가와 같은 다양한 직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직업들이지요?



② 지금은 어떤 일을 많이 할까요?

산업별 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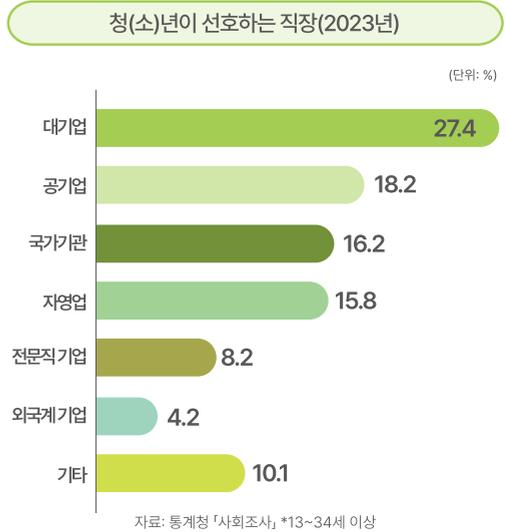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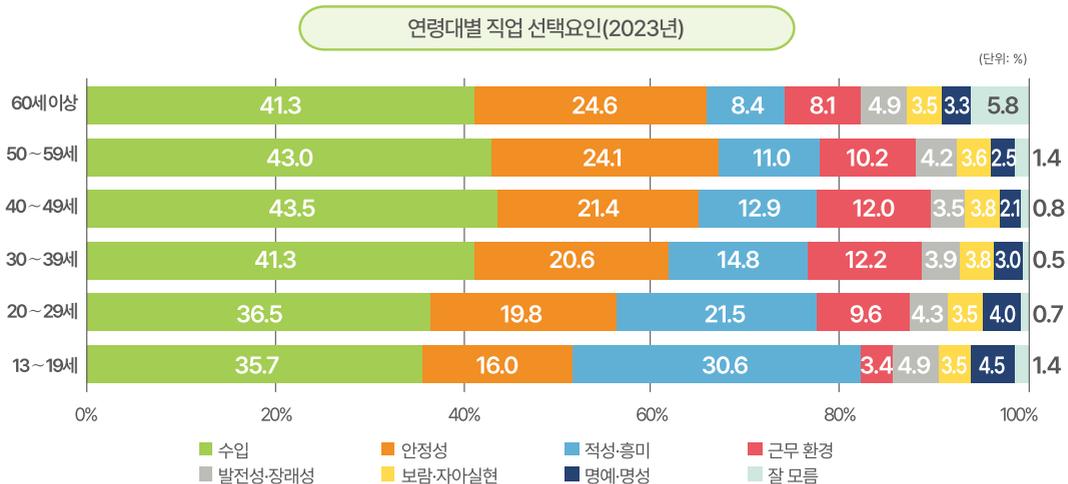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202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산업별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조업(17.2%)이었습니다. 제조업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요. 옷이나 신발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자동차, 배와 같이 큰 물건을 만드는 일도 모두 제조업에 포함되지요. 그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은 도·소매업(14.9%), 보건·사회복지업(9.1%), 건설업(8.7%) 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③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싶어할까요?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34세의 청년들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공기업, 국가기관의 순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자영업을 선호했는데, 이는 높은 수익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국가기관, 전문직 기업,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업무 환경의 유연성이나 복지 제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1위는 바로 수입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안정성과 적성·흥미 등이 있었는데, 젊은 층에서는 자기 개발과 개인적 흥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가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요소가 직업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이나 노후대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직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신기한 미래의 직업들!

미래에는 새로운 직업들이 아주 많이 생겨날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직업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우주여행이 현실화 된다면 우주까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우주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이 나타날 거예요. 우주여행 가이드는 흥미로운 우주 관광 코스를 계획하고, 수많은 행성에 대해 해설하는 역할을 하지요. 또한 '생태복원 전문가'라는 직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복구하고 이미 멸종된 동물과 식물을 복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외에도 사람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가상공간 디자이너',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 기술 전문가,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AI 트레이너 등의 직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통계'와 관련된 직업이 뜬다고?

빅데이터·AI시대로 접어들며 통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통계와 관련된 직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인터넷에서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가'와 같은 직업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요. 또한 금융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리스크관리자', 인터넷상에서 지우고 싶은 데이터를 깔끔히 제거해주는 '데이터 소거원' 같은 직업도 필요할 것이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회 돌봄경제

“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영영 울고 있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던 근무자가 아이를 보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다행히 가족과 만날 수 있었지요. 알고 보니 우리 동네 편의점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길을 잃은 아이들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니 파출소처럼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때 우리 동네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겠지요? ”



#돌봄경제 (Care economy)

돌봄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을 말합니다.



1 돌봄경제란?

돌봄경제는 사람들을 돌보거나 도와주는 일을 중심으로 산업을 키우고 서비스를 늘리는 정책을 말해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과 같이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돌봄경제는 바로 이런 돌봄 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듬는 돌봄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2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이것!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향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27.9%)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녹지·산책로(17.1%), 사회복지시설(14.8%) 등의 순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는 보건의료시설을, 낮은 연령대에서는 문화예술시설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편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잘 갖춰져 있을 때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거예요.

③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이나 가사 및 사회적 활동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외출을 지원하거나 재활치료에 동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았나요?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로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게 돕지요. 방문목욕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이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신체 건강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때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일상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더욱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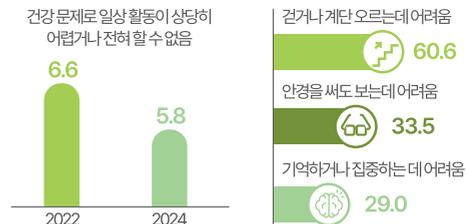


이럴 때 돌봄이 필요해요!

2024 「사회조사」에 따르면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전체의 5.8%로 조사되었어요. 이 중 절반 이상은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60.6%), 시력(33.5%)이나 기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9.0%)도 있었어요. 이러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돌봄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활동 제약 상태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④ 늘려야 할 복지사업을 살펴볼까요?

다양한 돌봄관련 사업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사업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 사업은 무엇일까요? 우선 돌봄지원서비스(26.6%)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의료·재활 지원 서비스(17.0%)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단위: %)

	계	돌봄 지원 서비스	의료·재활지원 서비스	일자리·자립자금 지원 서비스	연금·수당 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이동·교통 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각종 요급할인·감면과 세제 혜택 서비스	문화·예술 행사 참여 지원 서비스	기타
2021년	100.0	24.5	16.2	17.5	15.5	9.6	4.9	6.0	4.5	0.9	0.4	0.0
2023년	100.0	26.6	17.0	15.7	14.6	8.0	7.8	5.0	4.1	1.0	0.3	0.0
장애인 ²	100.0	18.5	18.3	16.4	27.0	5.0	4.8	2.6	4.5	2.6	0.3	-
비장애인	100.0	27.0	16.9	15.7	14.0	8.2	7.9	5.1	4.1	0.9	0.3	0.0

주: 1.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임 2.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돌봄 서비스 관련 직업



사회복지사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개인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지원을 도와주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조정을 담당 해요.



활동지원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식사 준비, 청소, 이동 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 도움을 제공해요. 자택에서 필요한 활동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

주로 노인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목욕, 식사 도움, 약 복용 등을 지원 하며,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도와 줘요.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소득·소비

“ 디지털 노마드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인터넷과 디지털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특정 지역이나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어느 나라에서든 일할 수 있지요. 주로
 개발자, 작가, 디자이너, 온라인 비즈니스 등의
 직업이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것 같네요! ”



#소득 (Income)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합니다.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는데, 경상소득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반면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연금,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① 소득이 뭐예요?

소득이란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돈을 말해요.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삼촌이 번 돈은 사업 소득에 해당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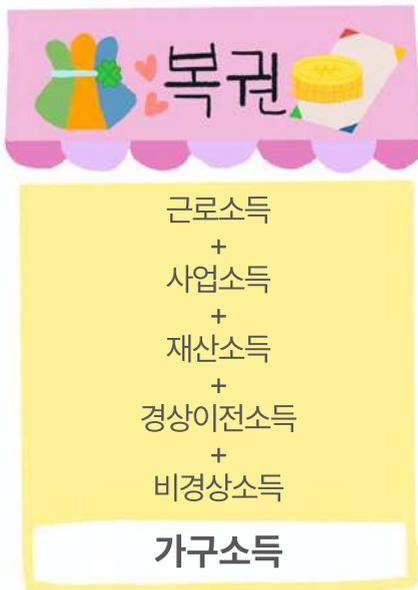
그럼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알아볼까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소득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지만 한편으로는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② 복권에 당첨된 것도 소득일까?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을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은 재산소득이라고 하지요. 그럼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당첨금은 소득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권 당첨금도 소득에 해당됩니다. 비록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득의 한 종류로 여겨지지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을 받았을 때 세금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③ 현명하게 소비하려면?

소비란 우리가 돈을 써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지요. 그럼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계획을 세워 저축을 해야 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지요. 다음으로 물건을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순위를 생각해서 소비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는지, 충동구매를 하지는 않는지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면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써서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④ 계란 3개에 1,000억 달러인 나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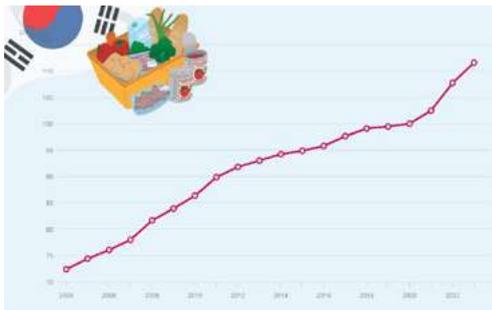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2008년 짐바브웨는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경제 혼란 속에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엄청난 양의 돈을 발행했어요. 이로 인해 일상적인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수레에 돈을 실어 가야 하는 지경이 되었지요. 심지어 계란 3개를 사는데 1,000억 달러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며칠 후에는 1,000억 달러로도 계란 1개를 살 수 없었다고 하니 물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⑤ 소비자물가지수(CPI)란?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편의점에 가면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사탕이나 과자, 생수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1980년대에만 해도 자장면 2그릇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해요. 소비자물가지수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는 지표예요. 정부나 기업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보고 우리 경제가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우 중요한 통계 중 하나예요.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소비자물가지수는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먼저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100이라고 할 때, 비교시점 물가의 높고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왼쪽 표에서는 2020년이 기준시점으로 이때의 물가를 100으로 두었습니다. 만약 2021년의 물가지수가 102.5라면 기준시점인 2020년에 비해 물가가 2.5% 높아진 것이지요.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물가의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의 물가 체험하기

통계청의 <나의 물가 체험하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소비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나의 물가'와 '공식물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지난 한 달간 주로 구매한 품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지난 한 달간의 공식물가와 나의 물가,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등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요!

온택트

“ 지금은 바야흐로 온택트 시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뭐든지 함께할 수 있어요. 코로나 혹은 태풍 등으로 학교를 못 가더라도 원격으로 얼마든지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요. 최근에는 전시회, 공연 심지어 여행도 온라인에서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



#언택트 (Untact)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언(un)과 접촉한다는 뜻의 컨택트(contact)를 합친 말로 사람 사이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온택트 (Ontact)

비대면·비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에 외부와 연결을 의미하는 온(on)을 붙인 신조어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① 방구석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랜선투어라고 들어봤나요? 인터넷을 연결하는 선인 '랜선'과 여행을 뜻하는 '투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요즘은 직접 여행을 떠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여행을 즐기는 '랜선투어'가 인기래요. 집에서 편안하게 유럽 여러 나라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유명 미술관의 작품들을 언제 어디서나 가상현실(VR)로 감상할 수도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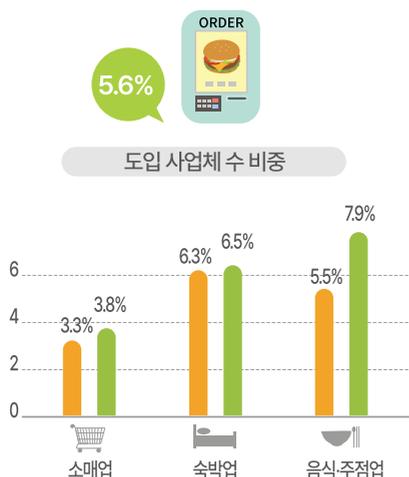


② 요즘엔 무인이 대세?

무인결제기기도입사업체수비중

(단위: %)

■ 2021년 ■ 2022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요즘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키오스크(무인결제기기)로 주문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곳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약 10만 5천개의 사업체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사업체 중 5.6%를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음식·주점업(7.9%)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는 숙박업(6.5%), 소매업(3.8%) 등이었는데요. 무인결제가 일상화되니 우리 주변에 무인아이스크림점이나 무인카페와 같은 무인가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인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해요.

③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구요?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생활과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래하는 사업체 수는 전체의 19.2%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모두 사업체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예약 시스템 등이 더욱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손가락 하나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플랫폼은 원래 대포를 설치하기 위한 평평한 판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요즘엔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을 연결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를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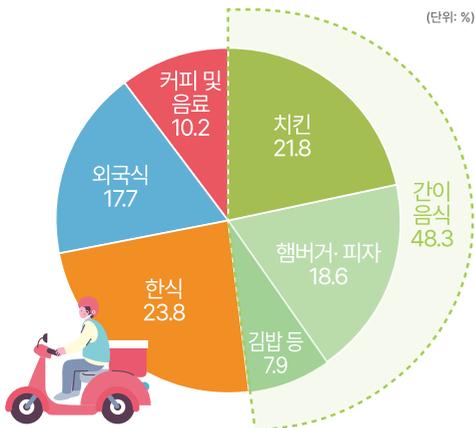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 수 비중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④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배달음식!

외식배달비 소비자출액 업종별 비중(2022년)



자료: 통계청 「실험적통계(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

요즘엔 간편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배달시킬까요? 통계청의 조사 결과 간이음식(48.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에 한식(23.8%), 외국식(17.7%), 커피 및 음료(10.2%) 순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간이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배달하는 것은 치킨(21.8%)이었고 햄버거·피자(18.6%), 김밥(7.9%) 등이 있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배달음식도 좋지만, 가끔은 가까운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함께 하는 집밥 한끼 어떠신가요?

㉔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언택트는 '콘택트(contact)'에서 '언(un)'을 더한 신조어로,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과 접촉하는 일 없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소비 방식을 말해요. 특히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선호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언택트 소비는 더욱 촉진되었는데요. 키오스크 사용에서부터 원격 의료, 비대면 직원 채용 등 언택트는 이제 우리의 생활 곳곳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내 방에서?!

전세계 팬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온택트 콘서트는 팬들의 음성, 환호 등도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생생한 콘서트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하여 대형 스타디움을 연출하거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지요.



✓ 클릭 한 번으로 전세계 어디든!

구글에서는 아트 앤 컬처 서비스를 통해 80여 개 국에 있는 전세계 유명 박물관을 집에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세계의 명소와 유산은 물론 디지털 전시회까지 감상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언택트(Untact)를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온택트(Ontact)가 주목받고 있어요. 온택트는 사람 간의 연결에 중점을 둔 온라인 활동을 말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화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회사에서는 원격 회의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요. 또한 직접 가야만 체험할 수 있었던 전시회와 공연 등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면서, 온택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지역경제

“갓 수확한 채소와 과일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나요? 그곳은 바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예요. 농민들이 신선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 중간 유통과정이 없으니 농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소비자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는 직거래 장터에 한번 방문해 볼까요?”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즉 각 시·도 내에서 경제활동 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입니다. 즉, 쉽게 말해 시도별 G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늘어나는 빈집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에 153만5천호로 전남(14.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주(13.5%)와 강원(12.2%), 충남(12.2%)이 그 뒤를 이었어요. 반면, 서울(3.4%)과 대전(4.9%)은 빈집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지요.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의 경우 전남과 경북, 전북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빈집 문제는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각종 범죄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② 생활사막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동네에 마트, 병원, 약국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문을 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점차 사라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는데 이것을 '생활사막'이라고 합니다. 생활사막이 되면 주민들의 삶은 아주 불편해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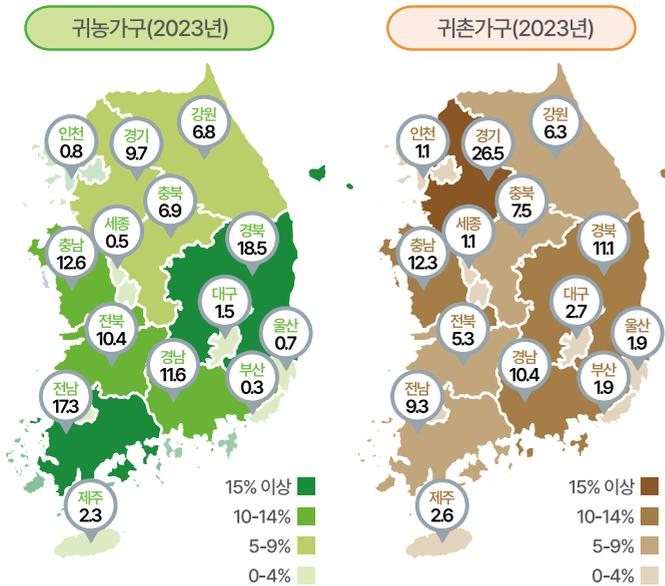
3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지방 소멸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인데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한 것으로, 일정한 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규모, 생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별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요.



4 인생의 2막은 자연인으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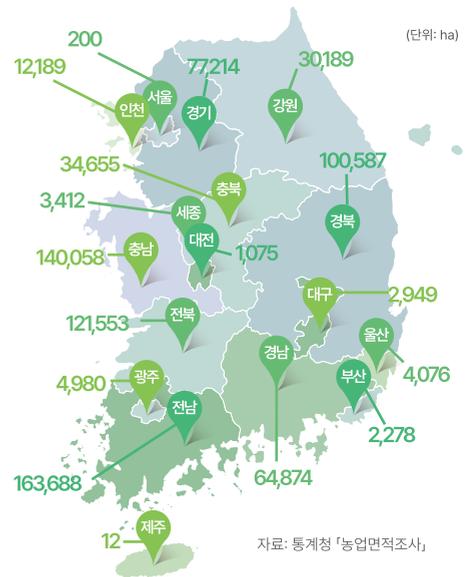
답답한 도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중 농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농촌에 왔지만 농업 이외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귀촌인이라고 하지요. 조사에 의하면 귀농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8.5%)이고, 귀촌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26.5%)로 나타났어요. 각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상담이나 멘토링, 영농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통계청 '귀농인·귀촌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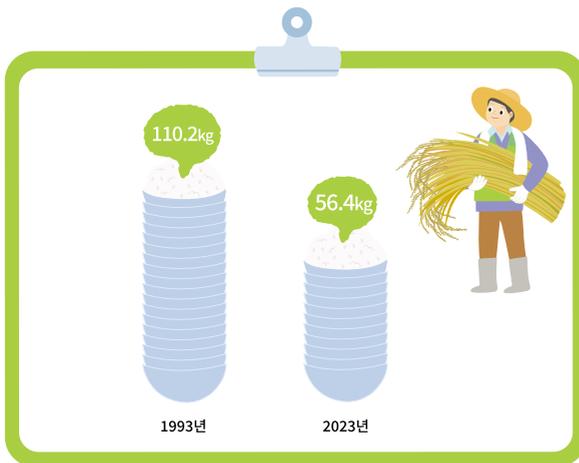
⑤ 밥은 줄고, 떡볶이는 늘고!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에요. 2023년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 논 경지면적은 전남(163,688ha)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는 충남, 전북, 경북 순이었습니다. 한편 가장 적은 경지면적을 가진 곳은 제주(12ha)였는데요.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전국의 경지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논 경지면적(2023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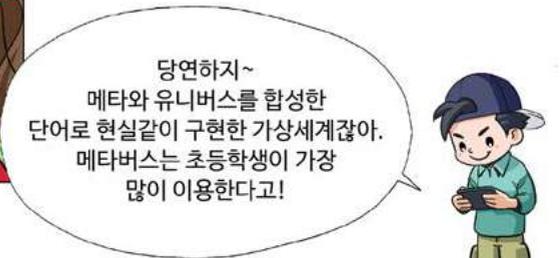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쌀 소비량은 1993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쌀 소비가 줄면 농사를 짓는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있어요. 요즘에는 밀키트, 도시락 같은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고, 떡볶이와 같은 분식이 유행하면서 쌀 가공산업의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 지원과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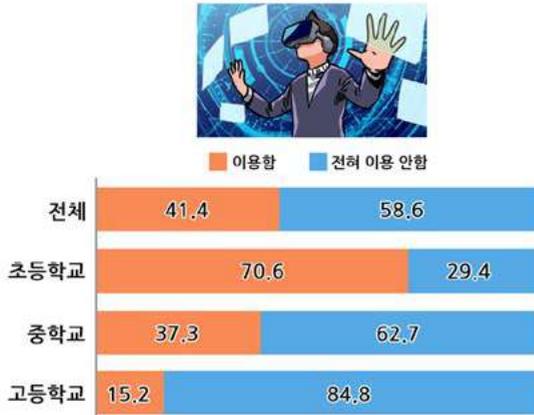


통계 웹툰

우리들의 스마트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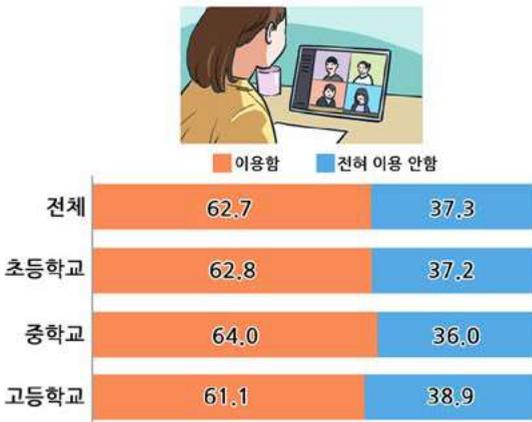
최근 1년간 메타버스 이용 경험(2022년, 단위:%)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2024.1.3. 확인)」



최근 1년간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 경험(2022년, 단위:%)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2024.1.3. 확인)」



최근 1년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경험 (2022년, 단위:%)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2024.1.3. 확인)」



memo



03

환경

03 환경

- 시간여행
- 기후변화
- 대기오염
- 친환경
- 탄소중립
- 지속가능성
- 통계 웹툰



옛날에는 한강 얼음장수가 있었다고?

조선시대에는 겨울철 강에서 얼음을 채취하고 저장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요. 이들을 장빙군이라고 해요. 장빙군들은 겨울이 오면 얼음을 확보하기 위해 강이나 호수로 출동했어요. 하지만 얼음을 채취하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고 해요. 어찌나 힘든지 얼음을 캐는 시기가 오면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지요. 장빙군은 한양의 주요 얼음 창고인 동빙고와 서빙고에 얼음을 저장했는데요. 이 창고들은 여름철에도 얼음이 녹지 않게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냉장고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동빙고와 서빙고에 저장된 얼음들은 궁중이나 관청 그리고 일부 양반가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얼음 장수는 1960년대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에서 캐낸 얼음은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채취가 금지되고, 냉장고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자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직업이 되었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한강이 두껍게 어는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지요. 이제는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피겨스케이팅 대회가 열리거나, 사람들이 한강 위에서 스케이트를 즐기는 일은 상상도 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한강이 잘 얼지 않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방출되는 난방열, 온수, 자동차 매연, 이산화탄소 등이 서울의 온도를 높였기 때문이죠.

또한 1980년대 대규모 한강 개발로 수심이 깊어진 것도 한강이 잘 얼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한강의 주요 보인 잠실보와 신곡보가 완공되면서 한강 수심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어요. 그 결과 한강이 얼기 위해서는 추운 날씨가 예전보다 더 오래 지속돼야 한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의 자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환경? 경제? 모든 통계가 여기에! -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은 국내외 주요 통계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현재 4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모든 국가승인통계가 있으며, 국제금융·경제에 관한 최신 통계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 및 설명자료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의 산과 바다가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

“호주에는 해마다 산불이 나는 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산불이 더 일찍 더 오래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를 뒤덮은 최악의 산불 '블랙서머'는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재 지구의 기후는 인위적인 요인(화석연료, 온실가스 등)과 자연적인 요인(화산 폭발, 태양 에너지 변화 등)으로 인해 변하고 있습니다.



① 몰디브가 가라앉고 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섬이라 불리는 몰디브가 몇 년 뒤에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몰디브는 2100년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1m 이상 상승하면 1,192개의 섬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2만명 이상 살 수 있는 수상도시 등이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범지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② 고작 1.5도의 차이라고?



사람의 체온은 보통 36.5°C 정도입니다. 여기서 1.5도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프고 열이 나는 등 몸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되지요. 지구도 이와 마찬가지로인데요.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도의 변화가 지구 전체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0여 년간 계절에 관계없이 약 1도가량 기온이 상승했어요. 최근 폭염이나 폭우,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뜨거워진 지구에 하얗게 질린 산호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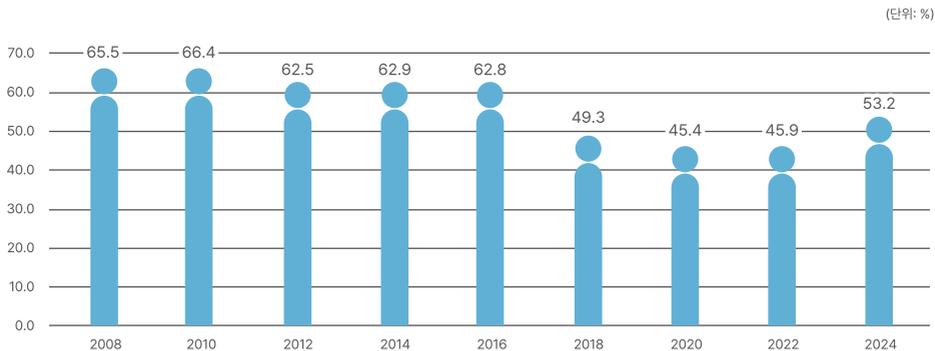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초는 해양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산호초들은 공생조류를 배출하면서 하얗게 변하며 죽어가는데요. 산호초가 사라지면 그곳에 서식하던 수많은 해양 생물들도 함께 사라지며 해양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지요. 탄소배출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모두가 노력할 때 아름다운 빛깔의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뛰노는 바다를 되찾을 수 있어요.



4 변하는 기후,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감소하던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도는 2024년 53.2%로 조사되어 2022년에 비해 7.3%p 상승하였는데요. 2022년 이후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나 환경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⑤ 기후변화를 막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불을 껐는지 확인하고, TV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플러그를 뽑아두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요. 둘째,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요. 양치를 할 때 컵에 물을 받아 사용하거나, 샤워를 할 때 물을 계속해서 틀어두지 않고 필요할 때만 물을 켜서 사용해요. 샤워기를 절수형 샤워헤드로 교체하거나, 샤워 시간을 줄이면 물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셋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요.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은 분리수거를 하고, 한 번 쓴 물건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필요한 사람과 나눌 수 있어요. 넷째,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나의 건강과 자연 모두에 도움이 되지요. 또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타기 때문에 매연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면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거예요.



기후변화 통계를 영상으로?! -세상을 그리는 통계

KOSIS의 통계시각화 콘텐츠 중 '세상을 그리는 통계'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평균기온, 인구변화, 결혼, 1인가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요. 다양한 통계자료를 영상으로 쉽게 만나보세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되찾아요! 대기오염

“ 1952년 12월, 런던에서 약 1만명이 사망하고 10만명 이상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범인이 누구냐구요? 바로 ‘대기오염’이었어요. 오염물질이 안개와 만나 그레이트 스모그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



#대기오염 (Air pol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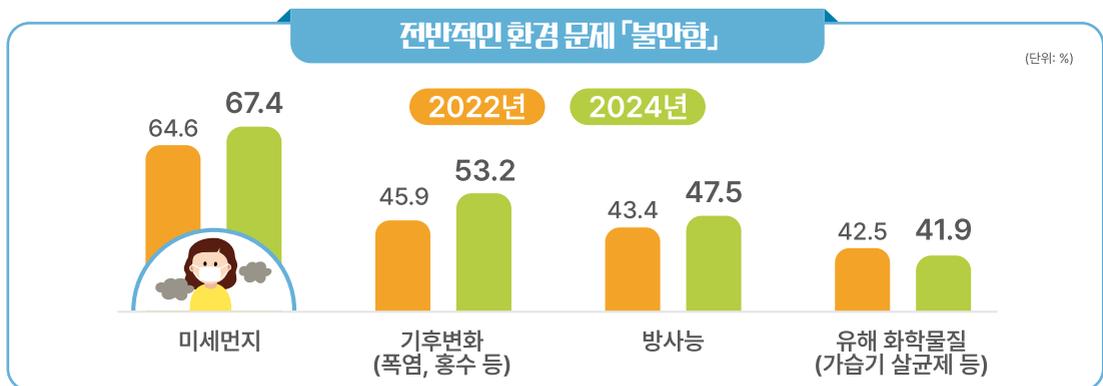
인간이 배출한 한 가지 이상의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섞여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쾌적한 생활과 재산상 정당한 권리를 위협 하는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① 스모그, 숨 막혀요!

매연이나 배기가스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이 안개에 섞여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스모그(smog)라고 해요. 스모그는 스모크(smoke)와 포그(fog)가 결합된 말로 사람이 스모그에 노출되면 호흡기나 피부에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동·식물도 병들고 심지어 건축물까지 부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모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걸기나 자전거 타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스모그가 발생하면 외출을 줄이고 창문을 닫아야 하며,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② 방사능보다 걱정되는 미세먼지?!



방사능 유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기후변화나 방사능 유출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67.4%로, 기후변화(53.2%)나 방사능(47.5%)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2022년 64.6%에서 2024년 67.4%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환경문제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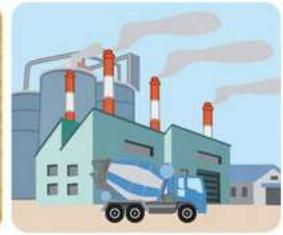
③ 황사와 미세먼지 무슨 차이일까?

황사와 미세먼지, 둘 다 미세한 먼지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황사는 사막 등의 건조지역에서 모래나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하는 자연현상을 말해요. 따라서 주 성분도 토양의 성분과 비슷하지요. 반면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 및 매연 등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되는 인위적인 물질인 경우가 많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모두 우리의 호흡기에 좋지 않으므로 외출 시 마스크를 쓰면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황사
아시아 대륙의 사막 지대에서 날아오는 흙먼지



✓ 미세먼지
각종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먼지

④ 로마시대에도 대기오염이?



로마시대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납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납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기가 나와 공기를 오염시켰다고 해요. 이 오염된 공기는 아주 멀리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 오염물질들은 그린란드의 빙하에 쌓여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대기 물질이 쌓인 빙하를 채취한 샘플을 아이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로마시대뿐만 아니라 수십만 년 전의 환경 상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로마시대에 대기오염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⑤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편히 숨을 쉬고 있을까요?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기질 만족도는 42.8%로 2022년(42.3%)보다 상승했어요. 2년 단위로 조사되는 대기질 만족도는 2014년(36.0%) 이후 하락하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지요.

최근 10년간 대기질 만족도 추이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실천해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전기를 절약해요. 에너지를 아끼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지요. 셋째, 분리수거를 해요.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발생하는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모두 편히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뉴스가 통계를 만났을 때? -뉴스기반 통계검색 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SDC)는 국민들이 행정통계자료 및 민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뉴스기반통계검색 서비스는 경제, 농축수산물 관련 현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슈 키워드와 통계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주요 키워드 및 키워드 관계망을 워드클라우드와 같이 시각화하여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손으로 지구를 지켜요! 친환경

“도로가 발전소가 된다구요? 솔라로드는 아스팔트 대신에 태양광 패널로 만든 도로를 말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따로 산을 깎을 필요 없이 도로에 내리찍는 햇볕으로 전기를 생산하지요. 만약 눈이 많이 내리면 발열을 통해 꽁꽁 언 도로를 녹이기도 하고, 비나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내장된 LED로 차선을 밝게 표시하기도 한대요. 환경을 살리는 기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환경 (Eco-friendly)

친환경이란 화석연료를 고갈시키거나,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잘 융화되는 행동이나 철학을 말합니다.



① 환경을 보호해요!

친환경이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과 잘 어울리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도 모두 친환경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친환경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② 우리의 체감환경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우리 동네는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나요?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좋다는 응답이 전체의 49.4%로 나타났어요. 대략 절반 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체감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녹지환경(59.0%)이었고, 다음으로는 빛 공해(46.6%)와 대기(42.8%) 순이었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의 건강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두 함께 잘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③ 새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말아요!

풍력 발전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풍력터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풍력터빈의 커다란 날개가 철새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있나요? 철새가 이동하는 동안 풍력터빈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터빈의 날개가 빠르게 회전할 때, 철새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다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철새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고, 터빈 설치 위치를 신중히 선택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날개에 검은 페인트를 칠하거나, AI기술을 활용해 날개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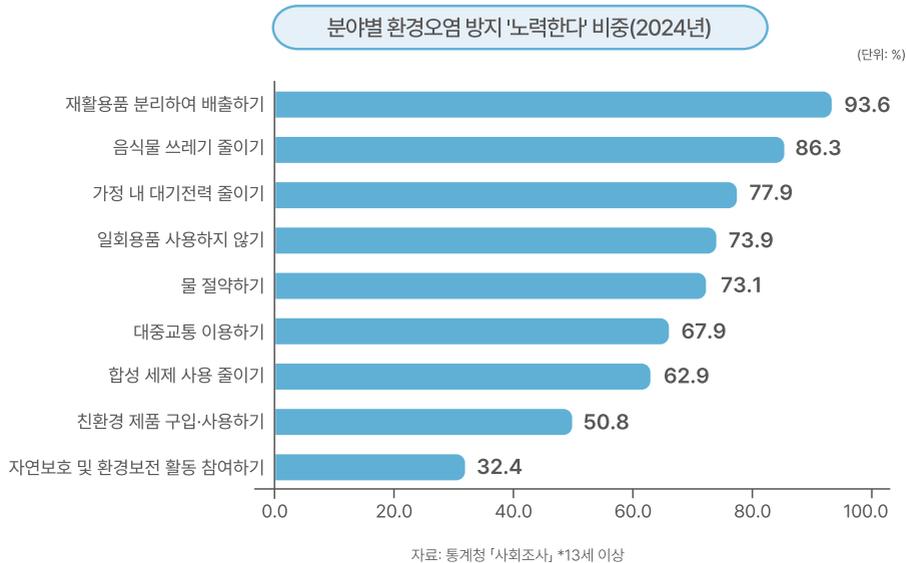
④ 가짜 친환경 제품이 있다?

실제로는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그린워싱이라고 해요. 어떤 기업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그 회사가 친환경 기업이라 믿고 제품을 사게 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그 회사가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거나, 회사의 실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우리 함께 실천해요!

환경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재활용품 분리하여 배출하기(93.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다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86.3%),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77.9%),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73.9%) 등이 있었지요. 한편 가장 저조한 활동은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하기(32.4%)로 나타났는데요. 일상 속 작은 실천과 더불어 자연보호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한 날이에요. 세계 환경의 날에는 150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하여 온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여요!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이라고 들어봤나요? 외부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소비가 0에 가까운 건물을 말하지요. 이러한 건물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최소화하니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로에너지 빌딩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순배출량이 '0(zero)'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①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이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시켜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최근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은 더욱 주목받고 있지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해요. 또한, 나무를 심거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활용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하지요.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함께 노력해볼까요?

② 흔적이 남는다? 탄소발자국

이메일을 하나 보낼 때 약 4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는 이메일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버가 가동될 때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활동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탄소발자국이란 인간의 모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해요. 즉 탄소발자국을 줄인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 탄소제로! 태양광 발전



태양이 지구에 1시간 동안 비추는 에너지가 전 세계 사람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처럼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면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전력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데요. 이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4 친환경 운전 습관을 알아봐요

친환경 운전 습관 '노력한다' 비중(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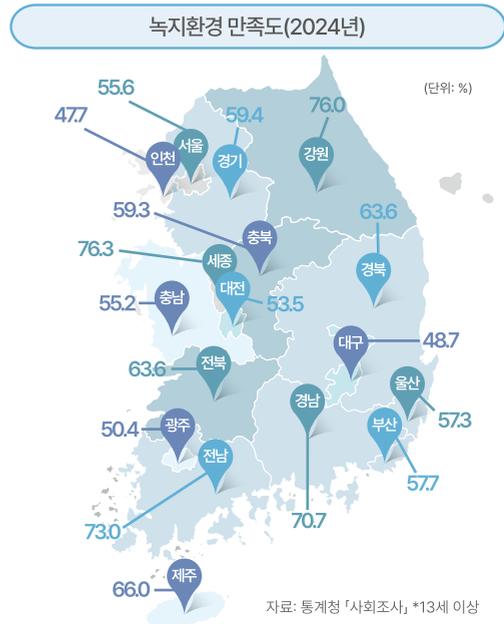
주: 19세 이상 응답자 중 '평소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응답한 경우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친환경 운전이란 운전 방법과 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 방식을 말해요. 운전자들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친환경 운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급출발과 급제동을 하지 않기(95.0%),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소화하기(94.3%), 정속 주행을 유지하기(93.4%) 등을 높은 비율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작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고 우리 환경도 더욱 개선될 수 있어요.

⑤ 도심 속 작은 자연, 녹색공간으로 숨쉬다

녹지를 조성하는 일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녹지공간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대기 중의 유해 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로움을 주지요.

우리나라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볼까요?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59.1%)이 만족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세종(76.3%), 강원(76.0%), 전남(73.0%)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반대로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지요. 녹지공간은 특히 도심지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도심지의 녹지공간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며,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해요.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요! 지속가능성

“ 버섯가족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대요?
버섯의 균사체를 가죽처럼 가공한 마이셀리움으로
가방, 신발, 심지어 스티로폼도 만들 수 있대요.
특히 버섯 스티로폼 포장재는 가볍고 튼튼하며
불에도 잘 타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사용이
끝나면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요.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1987년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 (WCED)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이 개념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해요.



①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즉 경제 성장, 사회 안정,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야 하지요. 지속가능성은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함께 잘 살기 위한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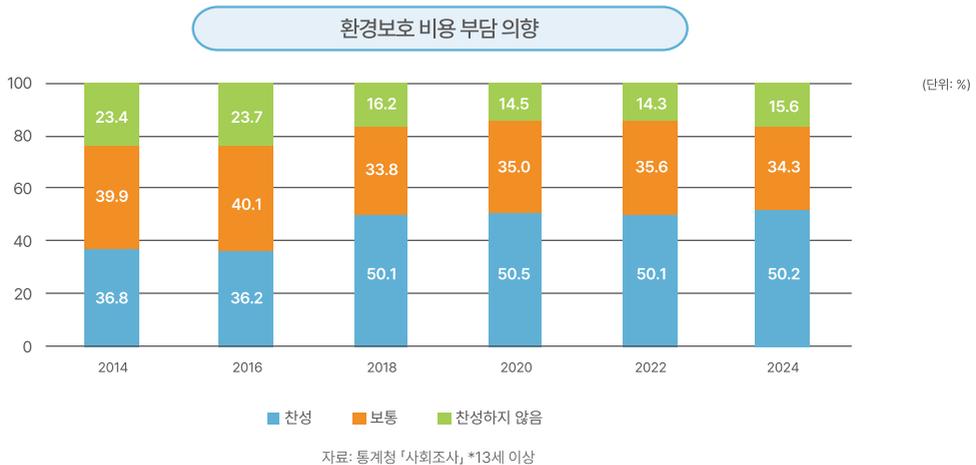
② 패스트푸드 말고 패스트패션?

패스트패션이란 빠르고 값싼 패스트푸드처럼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해요. 유행에 따라 디자인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유행에 뒤떨어진 옷들은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데요.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염색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래 입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옷을 사용하고, 필요 없는 옷은 기부하거나 물려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요.



③ 환경보호 비용 낼 수 있나요?

환경 부담금은 오염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 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경보호를 위해 부담금을 내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의 50.2%로 2명 중 1명은 찬성하고 있었는데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씩 비용을 분담하며 환경보호에 힘쓰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④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지름이 5mm 이하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해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미세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며 외부 자극에 의해 서서히 작아진 것도 있지요.

이 조각들은 바다와 땅으로 퍼져 동물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고기가 미세플라스틱을 먹으면 우리도 그 물고기를 먹었을 때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지요. 몸 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게 되면 내부 장기가 손상되거나 염증 반응이 생기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등 작은 일부터 함께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⑤ '반려 해변'을 키운다구요?!

지구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중 플로깅은 사람들이 함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에요.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특정 요일마다 함께 조깅을 하며 길에서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데요. 운동도 되고 동네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요.



혹시 반려해변이라고 들어봤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듯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다를 돌보는 캠페인을 말하는데요. 최근 몇몇 기업과 단체에서는 반려해변을 입양하여 정기적으로 해변의 쓰레기를 줍고 바다를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대요. 이러한 캠페인들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요! - 사회조사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해요. 사회조사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 복지 상태를 파악하고, 정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복지 및 교육,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정책 개발에 활용되므로 조사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통계 웹툰

우리는 지구 환경 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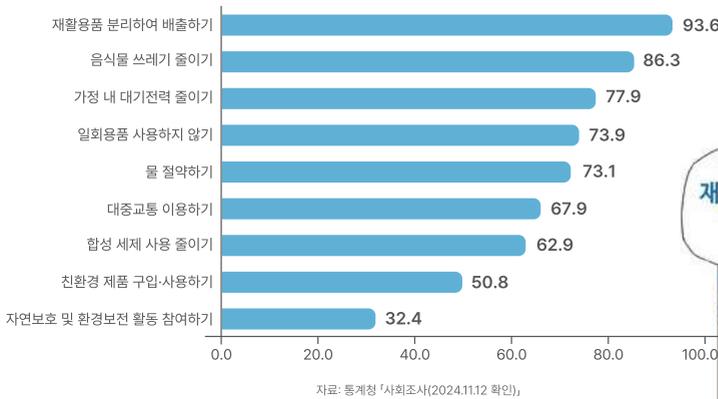
히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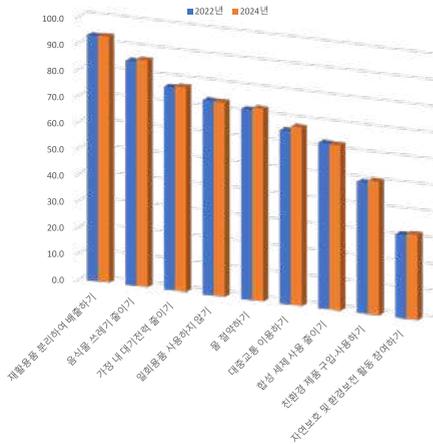




분야별 환경오염 방지 '노력한다' 비중(2024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11.12 확인)'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비교

(단위: %)

범주	2022년	2024년	증감폭
재활용품 분리하여 배출하기	93.3	93.6	0.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85.3	86.3	1.0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	77.2	77.9	0.7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73.9	73.9	0.0
물 절약하기	72.3	73.1	0.8
대중교통 이용하기	66.0	67.9	1.9
합성 세제 사용 줄이기	63.0	62.9	-0.1
친환경 제품 구입 사용하기	49.9	50.8	0.9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하기	31.8	32.4	0.6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11.12 확인)'



memo



04

복지

04 복지

- 시간여행
- 분초사회
 - 워라벨
- 여가생활
- 건강한 삶
- 더 나은 사회
- 통계 웹툰

시간여행



통계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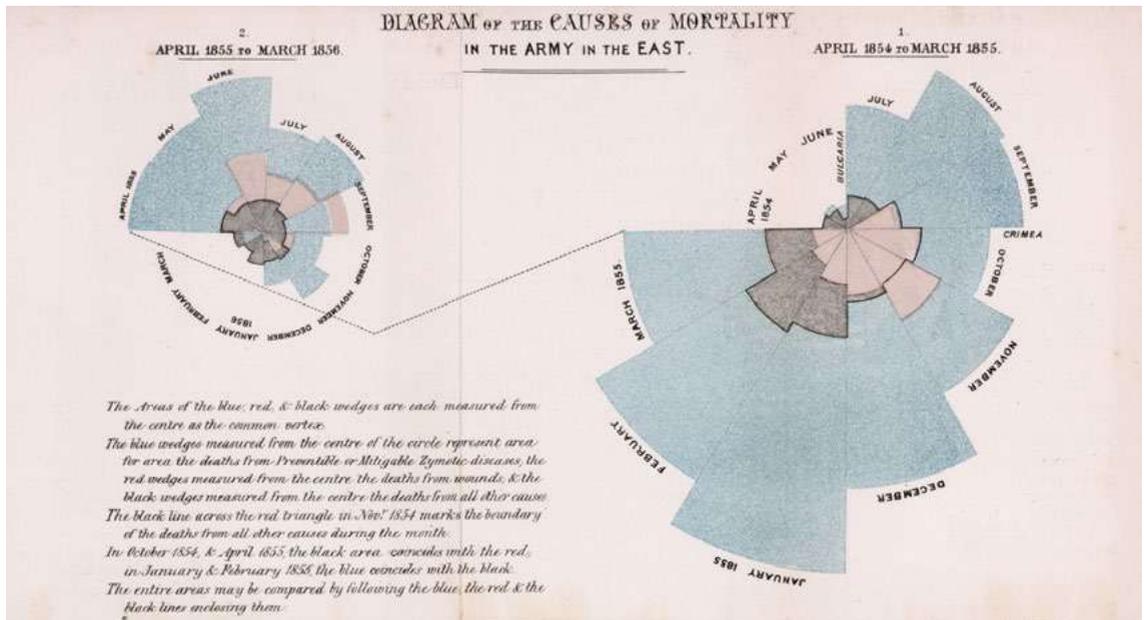
'흰 옷 입은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1820년 영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854년 크림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간호사로 지원하여 야전병원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나이팅게일은 부상병을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야전병원에서는 수많은 부상병들이 고통받고 많은 이들이 죽어갔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투로 인한 부상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팅게일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녀는 부상보다는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이팅게일은 부상병의 옷을 자주 세탁하고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병실을 늘 청결히 하고자 애썼지요. 하지만 위생적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이죠.

나이팅게일은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입원,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매일 기록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생 개선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민하던 나이팅게일은 통계 수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장미도표'를 제작했어요. 장미도표는 위생 상태 개선 후 사망률이 떨어진 극적인 변화를 그림으로 그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는데요. 바로 이 장미도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병원의 위생 상태 개선으로 이어져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바로 이 장미도표는 19세기를 통틀어 최고의 통계그래픽으로 손꼽히고 있지요. 단순한 숫자와 그림에 불과해보이는 통계가 수많은 생명을 살린 순간이었습니다.



자료: Florence Nightingale, "Diagram of the Causes of Mortality in the Army in the East," 1858.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아보아요! 분초사회

“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갈수록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문득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하루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



#필수시간 (Indispensable time)

필수시간은 잠, 식사 등 개인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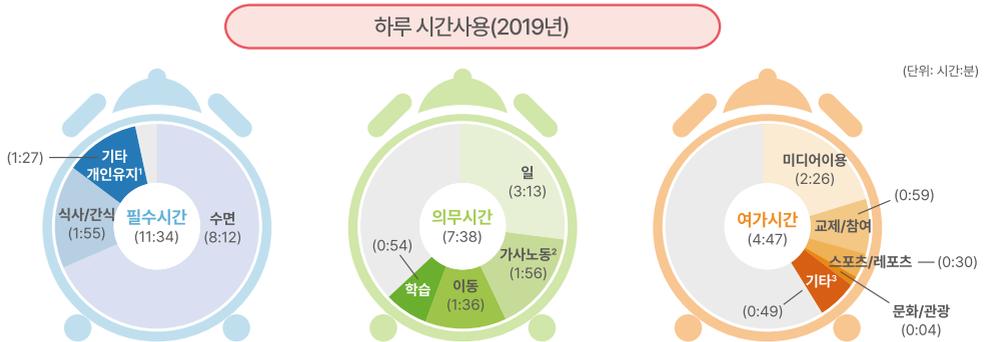
#의무시간 (Working time)

의무시간은 일, 학습 등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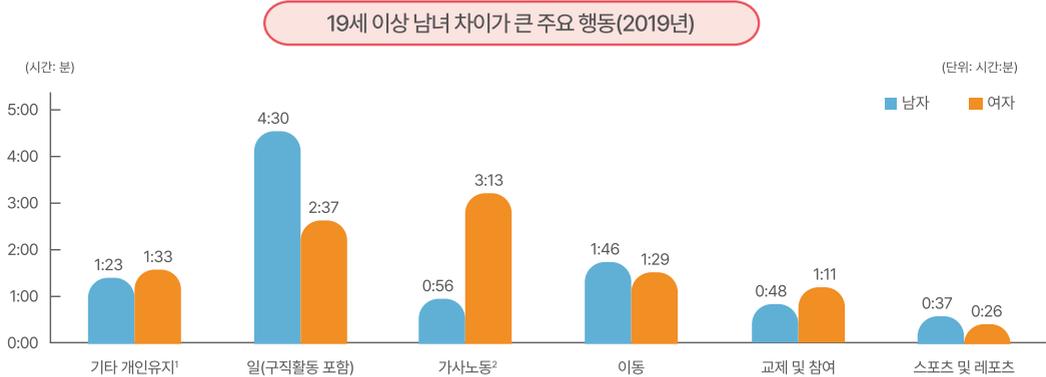
①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어 관리해야 할 만큼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분초사회'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24시간을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조사해보았어요. 먼저, 필수시간 중 대부분은 수면(8시간 12분)과 식사(1시간 55분)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의무시간은 총 7시간 38분으로, 일(3시간 13분)과 가사노동(1시간 56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요. 특히 여가시간은 미디어 이용(2시간 26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 1.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2.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3. 게임 및 놀이, 개인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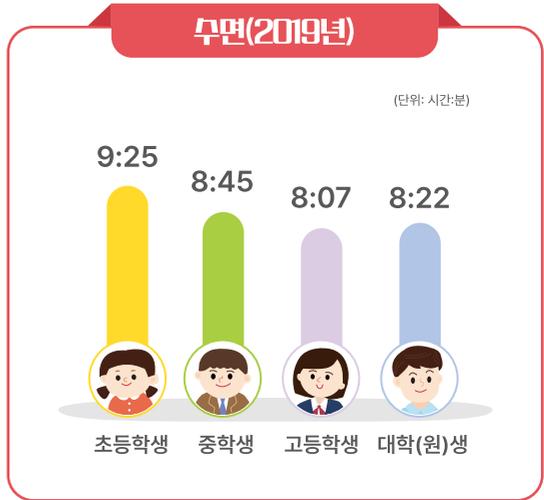
성별로 차이가 큰 행동들도 있었는데요. 남성은 여성보다 일 관련 시간이 1시간 53분 많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2시간 17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또한 교제 및 참여는 여성이 23분 많았고, 스포츠 및 레포츠는 남성이 11분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평균적인 하루를 살펴보았는데요. 바쁘디 바쁜 분초사회 속에서 시간을 촘촘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 1.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2.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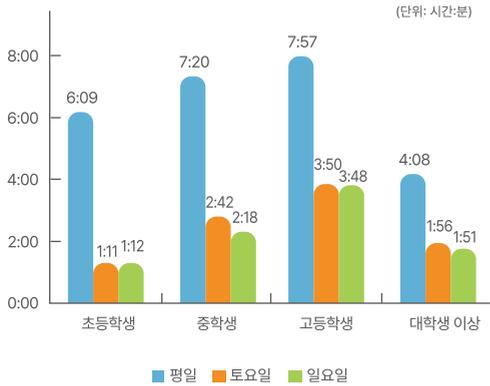
② 대한민국 학생들의 하루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평균적인 하루는 어떨까요? 먼저 학생들의 기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47분, 주말 오전 9시경으로 조사되었어요. 주말에는 좀 더 느긋하게 늦잠을 즐길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살펴봅시다. 수면시간은 초등학생이 평균 9시간 25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어요. 나이 순으로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좀 더 짧았습니다.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0세 이상

요일별 학습시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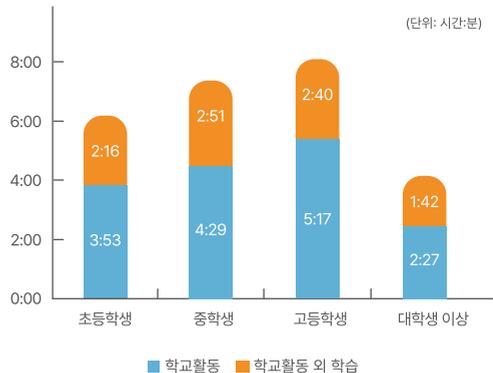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0세 이상

한편 공부 장소를 학교 안과 밖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을 때, 학교 내 학습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고등학생(5시간 17분)이었어요.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중학생(2시간 51분)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학원이나 도서관 등에서 꾸준히 공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살펴볼까요? 가장 공부시간이 많은 것은 고등학생으로 무려 평일 7시간 57분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중학생(7시간 20분)과 초등학생(6시간 09분) 순이었습니니다. 대학생은 4시간 08분으로 공부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대학생들은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내·외별 학습시간(2019년, 평일)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0세 이상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2022년	51.1%
2024년	57.3%

여학생의 만족도

(2024년 기준)
54.8%

남학생의 만족도

(2024년 기준)
59.6%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어요.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57.3%로 2년 전 51.1%에 비해 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성별로 보았을 때는 남학생 59.6%, 여학생은 54.8%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하루를 살펴보았는데요.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 생활시간조사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1999년 처음 시작되어 매 5년마다 시행되어 2024년 6회째 조사를 실시했어요. 특히 2024년부터는 3월 조사가 추가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총 4회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계절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잘 알게 되면 사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요!

워라밸

“프랑스에는 ‘퇴근 후 연락 금지법’이라는 게 있대요. 조금 우습게 들리는 이 법이 사실은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2017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퇴근 후에 일과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준다고 해요. 혹시라도 퇴근 후에 문자 한 통이라도 했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지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Work-Life Balance)

워라밸은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을 조화시키고 균형 있게 만들어 근로자는 삶의 만족을 높이고, 조직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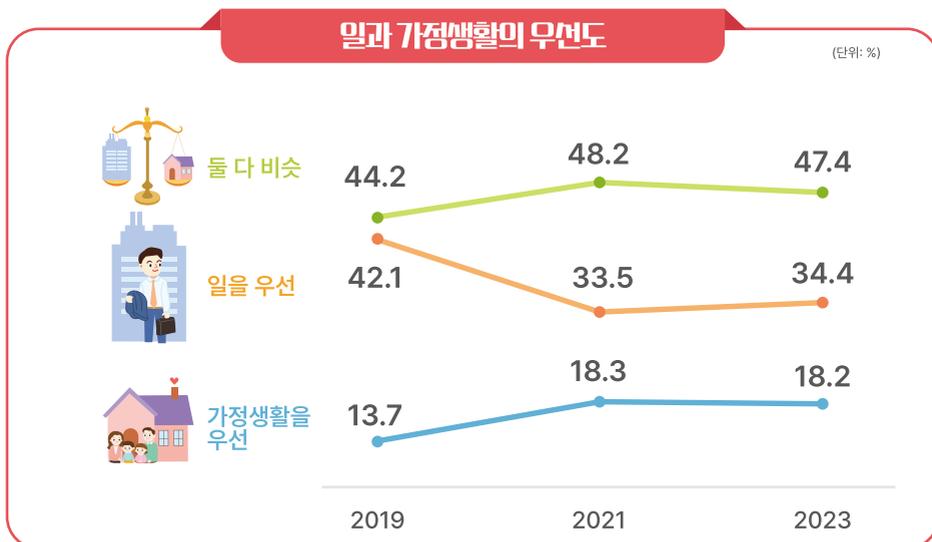
① 퇴근 시간,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는 출근 시간 이전에 컴퓨터를 켤 수 없고, 퇴근 시간을 6시로 설정하면 그 시간에 자동으로 컴퓨터 전원이 꺼진다고 해요. 더 일찍 혹은 더 늦게 남아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지요. 이러한 노력들은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요.



② 일과 가정,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일과 가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5명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2019년 42.1%였으나 2023년에는 34.4%로 나타났어요. 반면,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2019년 13.7%에서 2023년 18.2%가 되었지요. 예전에 비해 일보다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9세 이상

③ 가장 기분 좋은 일 BEST?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24시간을 파악하는 조사로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10분마다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데요. 하루를 모두 기록한 뒤에는 그날의 기분이 어땠는지,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과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순간 등을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중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우선 1위는 식사하기(13.4%)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면교제(8.2%), 실시간 방송시청(5.5%), 간식 및 음료 섭취(4.7%) 순으로 나타났어요.



기분상태별 상위 행동 (10개, 소분류 기준)

(단위: 요일 평균 비율)

순위	가장 기분 좋은 행동	비율	순위	가장 스트레스 받은 행동	비율
1	식사하기	13.4	1	법인 일 ¹	16.5
2	대면교제	8.2	2	가계비법인 일 ²	8.6
3	실시간 방송시청	5.5	3	스스로 학습	5.3
4	간식 및 음료 섭취	4.7	4	식사준비	3.8
5	걷기·산책	4.1	5	청소	3.3
6	퇴근	4.0	6	출근	2.7
7	수면	4.0	7	신체적 돌보기	2.5
8	개인 운동	3.7	8	설거지·식후정리	2.2
9	화상·음성교제	2.7	9	개인위생	2.1
10	상품 매장 쇼핑	2.6	10	대면교제	2.0

주: 1. 법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의 일 2. 서비스업 관련 가계비법인기업 일
 자료: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1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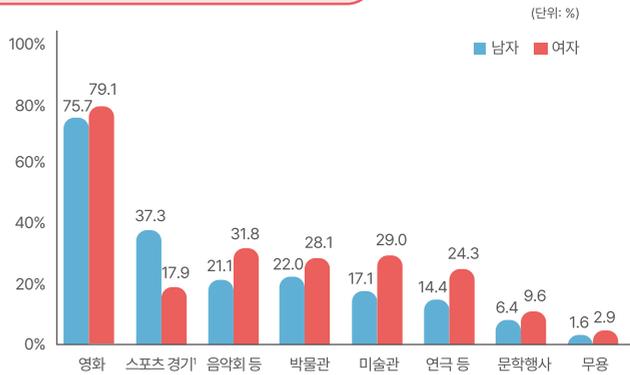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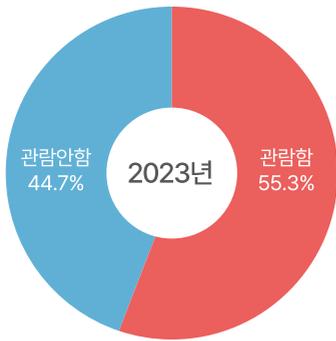


그렇다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조사 결과 가장 스트레스 받은 행동은 단연 '일'이었습니다. 전체 25.1%를 차지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스스로 학습(5.3%), 식사준비(3.8%), 청소(3.3%) 등으로 나타났어요. 이 조사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서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4 문화생활로 일상의 피로를 날리자!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생활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5.3%가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평소에 즐긴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녀 모두에게 가장 인기있는 활동은 영화 관람이었는데요. 스포츠 관람에서는 남자(37.3%)가 여자(17.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음악회,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복수응답)



주: 1. e-스포츠 예시 추가 포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세계 여러 나라의 근무 트렌드



미국: 워케이션

워케이션은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합친 말이에요. 휴양지에 가서 낮에는 원격 근무를 하고 밤에는 휴양을 즐길 수 있지요.



아이슬란드: 주4일제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 간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근로자들은 오히려 기존의 생산성과 성과를 유지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다고 해요.



독일: 근로시간 저축제도

근로시간 저축제도는 추가로 일한 시간을 모아서 저축했다가 나중에 돈이나 휴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피곤하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여가생활

“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47분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나요? 요즘엔 바쁜 일상과 일로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려보며 가끔은 여유있고 한가한 일상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가 (Leisure)

일이나 필수적인 가사 활동 이외에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즉 의무적인 활동 이외의 자유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서 얻어지는 개인의 만족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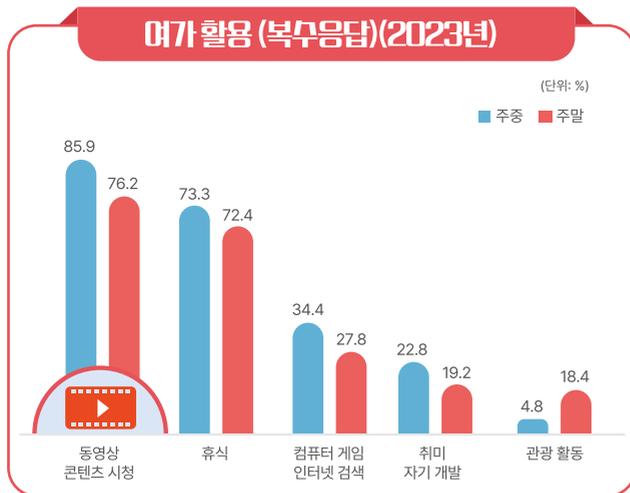


① 학교의 원래 뜻은 '자유시간'이라구요?

'학교(school)'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스콜레(scholè)'에서 왔어요. 스콜레는 원래 여가, 자유시간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한가한 자유시간이 생기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철학이나 예술에 대해 토론하고 탐구했대요. 이와 같은 활동이 학문적 모임으로 발전하고, 이후 학교(school)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원래 뜻이 자유시간이라니... 뭔가 좀 이상하지요?



② 나의 여가생활은?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85.9%가 주중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다음으로는 휴식(73.3%)이 많았고, 컴퓨터나 취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주중에는 가족, 혼자, 친구 순이었고, 주말에는 가족, 친구, 혼자 순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끔은 휴대폰을 잠시 꺼두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2023년)

(단위: %)

	가족	혼자서	친구 (연인 포함)	직장동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기타
주중	42.6	32.6	17.5	3.7	3.4	0.1
주말	54.2	17.7	21.4	0.9	5.8	0.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③ 책 읽는 사람이 줄고 있다?

독서 인구 및 1인당 평균 독서 권수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 동안 책을 1권도 안 읽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책을 읽은 사람은 48.5%로 나타났어요. 2013년 62.4%에서 독서인구는 꾸준히 줄어가고 있는데요. 2023년 독서하는 사람의 평균 독서 권수는 연간 14.8권이었습니다.

한편 분야별 독서 권수는 교양 서적(8.1권), 직업(5.3권), 잡지류(5.5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만화 등 기타로 분류된 책이 22.8권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혹시 기억나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올해 1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된 셈이네요.

분야별 독서 권수(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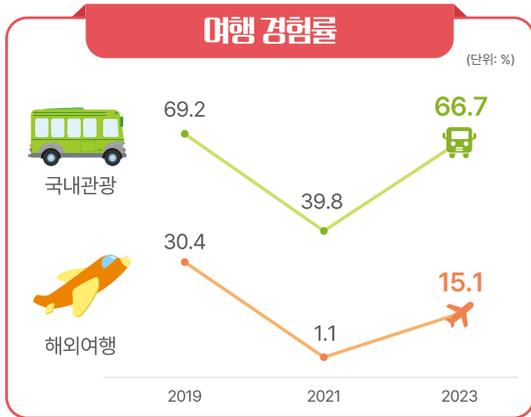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매년 9월 1일은 00의 날이다?

1896년 9월 1일은 우리나라의 첫 근대적 통계조사인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날이에요. 통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지요. 특히 2009년부터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격상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요.

4 지친 일상에서 떠나요!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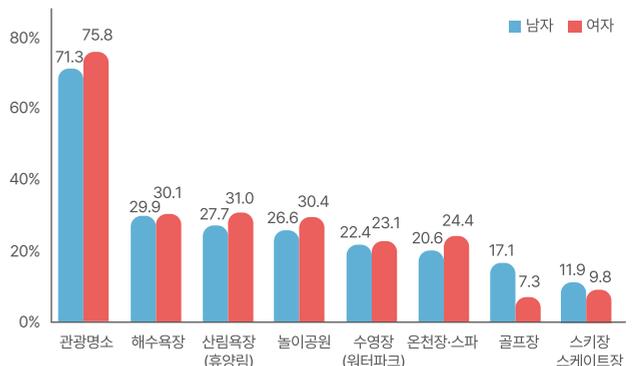
문득 일상에서 벗어나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국내관광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66.7%이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5.1%였습니다. 연령대별 여행 경험률은 국내 및 해외여행 모두 30대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저활동 또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지난 1년 간 레저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69.1%로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레저시설별로 살펴보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관광명소(73.6%)가 가장 높고, 해수욕장(30.0%), 산림욕장(29.4%), 놀이공원(28.5%) 순이었어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레저시설 이용률이 높았으나, 골프장과 스키장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요. 여러분도 여행이나 레저활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레저시설 이용



성별 레저시설 이용(2023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

“주문과 다른 커피가 나와도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일본에 있는 이 카페는 종업원의 실수가 유독 많은데, 계산서를 잃어버리거나 주문과 다른 메뉴가 나오는 일도 있대요. 다른 카페보다 더디지만 사람들은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해요. 이곳은 바로 치매노인들이 서빙을 하는 카페예요. 여기서 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을 하며 더욱 활력을 얻고, 손님들도 일상의 여유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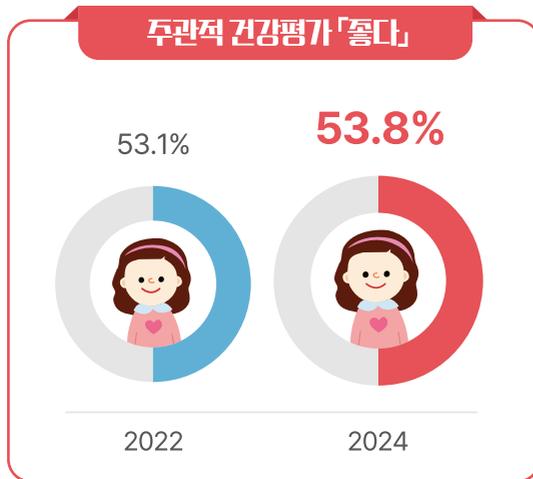


#건강 (Health)

세계보건기구(WHO, 1948)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① 나는 건강한 사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3.8%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찍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나가면 나중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② 건강을 위해 이렇게 실천해요!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024년 「사회조사」 결과 13세 이상의 인구 10명 중 8명은 건강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86.5%)과 적정 수면(79.9%)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음으로는 아침 식사하기(63.3%)와 규칙적 운동하기(48.4%) 등이 있었지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거나, 간단하게라도 끼니를 챙겨먹는 것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해볼 수 있어요. 또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요.

건강관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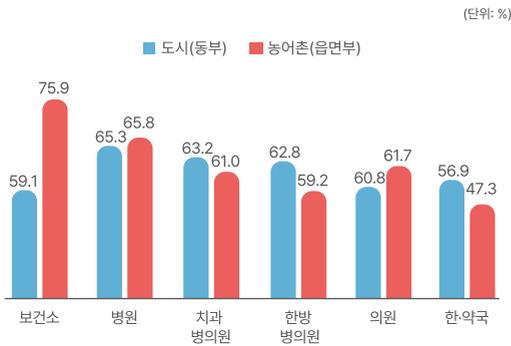
	아침 식사하기		적정 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2022년	64.2	35.8	80.5	19.5	45.5	54.5	85.1	14.9
2024년	63.3	36.7	79.9	20.1	48.4	51.6	86.5	13.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③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시나요?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2024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잘 갖추어진 의료시설과 서비스는 질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였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병원(65.3%)이, 농어촌에서는 보건소(75.9%)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특히 보건소에 대해 도시와 농어촌에서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료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1위가 긴 대기시간(26.4%), 다음은 비싼 의료비(19.2%)였고, 그 외에 치료결과 미흡(16.5%)이나 불친절(10.4%) 등의 이유도 있었어요. 이와 같은 통계조사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곧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가 필요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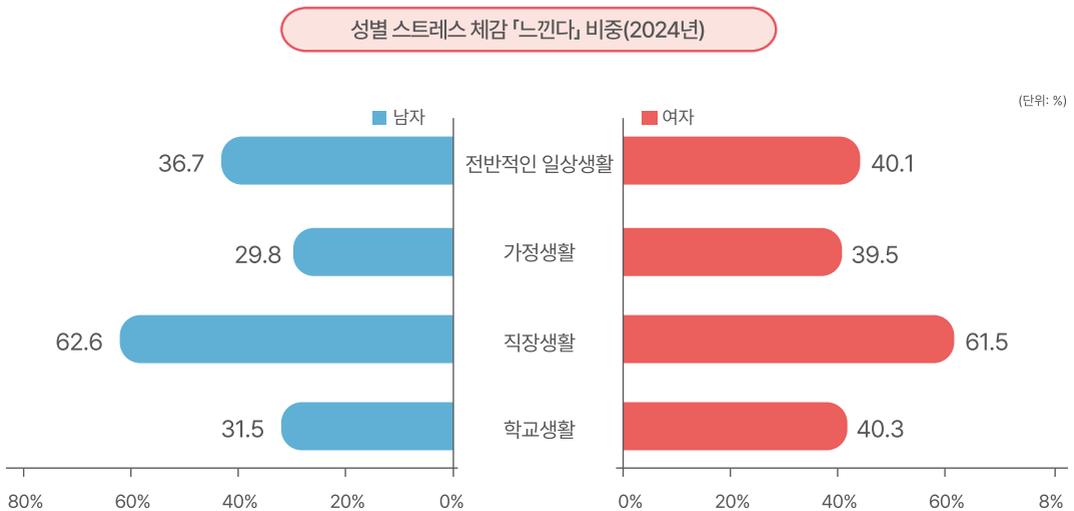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2024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4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과 학업,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까요?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라는 응답이 38.4%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40.1%, 남자가 36.7%로 여자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한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직장(62.1%)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35.7%), 가정(34.7%) 순이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벼운 산책이나 좋아하는 음악 듣기 혹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해요 더 나은 사회

“ 푸드뱅크라고 들어봤나요? 1965년 미국의 존 뱅헝겔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굶는 사람이 많은데도 슈퍼마켓에서는 음식이 대량 폐기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는 슈퍼마켓에 폐기될 식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역 교회에 식품 저장 창고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대요. 그 결과, 1967년 세인트 메리 푸드뱅크가 설립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



#기부 (Donation)

기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재산, 시간, 노력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단체, 또는 사회적 목적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는 현금 제공, 용역, 의류, 장난감, 음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전 재산을 기부해 만든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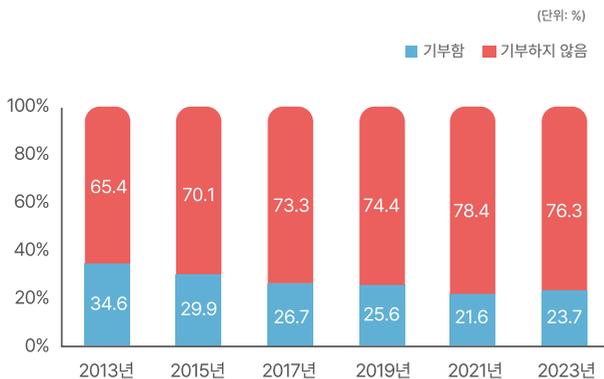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발명이 전쟁과 파괴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깊은 후회와 반성을 했지요. 그는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1895년, 노벨은 유언장을 통해 그 뜻을 알렸고 이렇게 탄생한 노벨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부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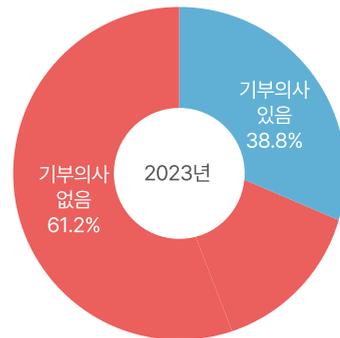
② 희망의 씨앗을 심는 기부!

여러분은 혹시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2023년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23.7%가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2013년 34.6%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인데요.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38.8%로 이 역시 2013년 48.4%에 비하면 줄어 들었습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자 자신에게도 행복감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부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부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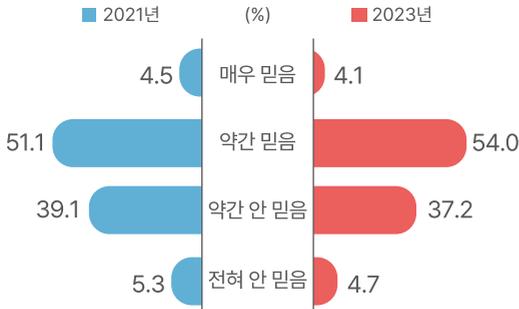
기부의사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③ 서로 믿고 돕는 사회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과연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매우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4.1%, 약간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54.0%였습니다. 약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신뢰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2023년 「사회조사」에서는 몸이 아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가 74.0%, 급하게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경우가 51.0%로 나타났습니다.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경우는 79.8%로 조사되었네요. 서로 신뢰하며 돕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돕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¹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2021년	72.8	2.3	50.1	2.2	79.6	2.9
2023년	74.0	2.3	51.0	2.2	79.8	2.9

주: 1. 19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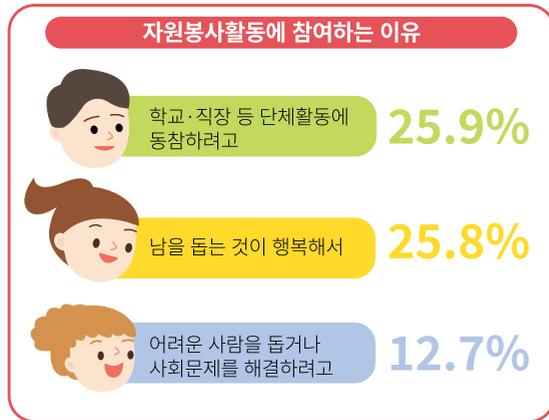


기부를 넘어 필란트로피로!

기부는 주로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통 단기적인 도움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 등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넘어 필란트로피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필란트로피란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로(philos)'와 인간을 의미하는 안트로포스(anthropos)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 재능 기부, 지식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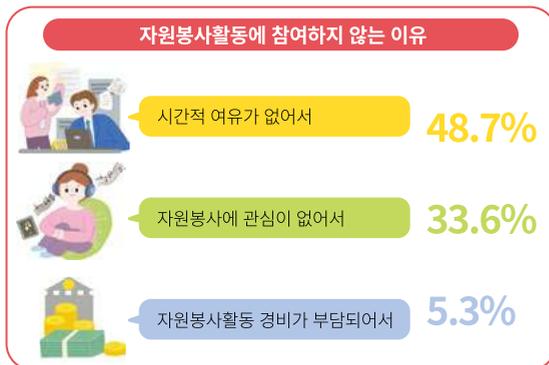


4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주로 참여하는 분야는 생활편의 지원(32.5%), 환경보호(19.5%), 문화행사(14.5%) 등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은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없었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48.7%)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어서(33.6%), 자원봉사활동 경비가 부담되어서(5.3%) 등이 있었습니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 이상

우리 이웃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봉사가 있어요.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참여 이유로는 학교·직장 등의 단체활동에 동참하려고(25.9%)와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5.8%)가 높게 나왔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작은 시간 투자나 간단한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도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 봉사나 재택 봉사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도 점점 확산되고 있으니 함께 참여하여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웹툰

사람들 여가 활동 중 1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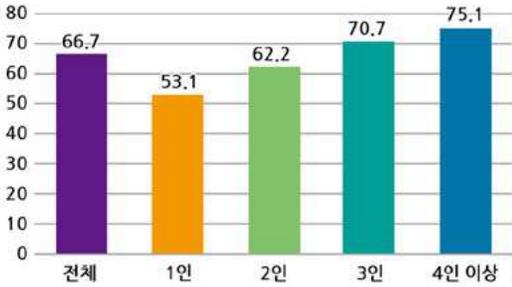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된 응답, 13세 이상, 202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24.6.9. 확인)」



가구원수별 국내관광여행 경험률(지난 1년간, 13세 이상, 2023)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2024.6.9. 확인)」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고
통계를 봐봐~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국내관광여행
경험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네~ 4인 가족이
가장 경험이 많네~

근데 어쨌나
우리 가족은
4인이지만 국내여행
경험이 '0'이네~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4인 가족은
75% 이상 국내관광을
했는데 우린 뭐냐고!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은 있어?



최근 3년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수 (상위 7개, 단위: 만명)

	2021	2022	2023
1	에버랜드 371만명	에버랜드 577만명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778만명
2	강구항 308만명	KINTEX(한국국제전시장) 531만명	에버랜드 588만명
3	엑스포해양공원(EDG) 304만명	롯데월드 452만명	KINTEX(한국국제전시장) 584만명
4	롯데월드 246만명	국립중앙박물관 340만명	경복궁 558만명
5	선유도 233만명	경복궁 338만명	롯데월드 519만명
6	도담삼봉 227만명	엑스포해양공원(EDG) 337만명	국립중앙박물관 418만명
7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218만명	강구항 275만명	강구항 382만명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2024.6.9. 확인)」



2023년 주요 관광지 입장객수 (시도별 1위, 단위: 만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2024. 6. 9. 확인)」



memo



부록

통계로 여는 미래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를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계서비스 채널을 소개합니다.

● 국가통계포털 (KOSIS)

모든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포털로,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서비스

● 지표누리

국가 발전과 국민 웰빙의 주요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의 지표를 제공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센서스 등 통계정보를 지도 위에 결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 통계데이터센터 (SDC)

공공데이터를 외부자료와 연계·분석 할 수 있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

이용자의 심층연구·분석을 지원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제공



통계청
Statistics Korea

1.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홈페이지 화면

- **국가통계포털(KOSIS*)**은 국내, 국제, 북한의 주요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자료를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원스톱 통계서비스입니다.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2023년 12월말 기준, 408개 기관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1,429종의 국가승인 통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통계자료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원스톱 통계서비스

- **국내통계** 인구·경제·사회·환경 등 30개 분야에 걸쳐 주요 국내통계를 제공



- **국제통계** 국제경제 및 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국제지표 및 통계자료 제공
- **북한통계** 국내·외의 산재한 북한관련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 **쉽게 보는 통계** 일상생활과 관련한 흥미로운 자료를 대상별, 이슈별로 나눠 제공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시각화콘텐츠

<p>KOSIS 100대 지표</p>  <p>인구, 물가 등 주요지표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인구로 보는 대한민국</p>  <p>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통계를 통해 알아봅니다.</p>
<p>세계속의 한국</p>  <p>세계각국의 주요지표를 시각화하여 서비스합니다.</p>	<p>통계로 보는 자와상</p>  <p>지역·성별·연령 등 자신과 관련된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p>
<p>해석남녀</p>  <p>남녀에 대한 차이를 통계정보로 알아보고 생각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p>	<p>통계로 시간여행</p>  <p>통계를 좀 더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시절 추억을 즐길 수 있습니다.</p>

웹·모바일 앱 개발 활용을 위한

공유서비스(Open API)

KOSIS 통계정보를 웹 또는 모바일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I)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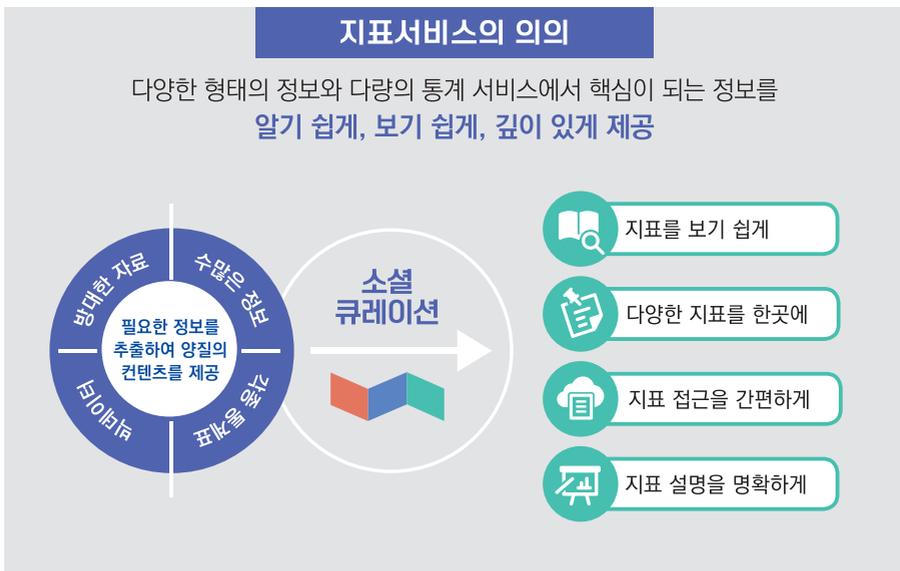


2. 지표누리

<https://index.go.kr>



- **지표누리**는 국가발전 상황과 국민의 웰빙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여러 영역의 지표에 대해 의미분석·통계표와 함께 그래프 형태의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정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e-나라지표, 국가발전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저출산 통계지표(안),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른 지표 제공 현황

e-나라지표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수립, 국정운영 점검 등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표 749개를 모아 국정상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정책목표(17개 목표, 168개 세부 목표, 231개 세부 지표)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생활의 수준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사회변화의 예측 등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작성하며,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재분류 또는 가공한 자료

국민 삶의 질 지표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주요지표(11개 영역, 71개 지표)를 선정하여 제공

저출산 통계지표(안)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3대 영역*으로 이루어진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 중, 23개 주요지표를 우선 공개하며 2024년 최종적으로 지표 체계를 공개할 예정

* 3대 영역 :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국가발전 지표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발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전문가가 선정한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핵심 지표(16개 영역, 93개 지표)를 제공

3.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



◀ 홈페이지 화면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는 통계청 데이터와 공공·민간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연계·융합함으로써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대국민 통계플랫폼 서비스입니다.

*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통계를 지도 위에 쉽게 보여주는

시각화콘텐츠

- **통계주제도** 국민의 관심사와 관련된 6개 주제(인구·가구, 주거·교통, 복지·문화, 노동·경제, 건강·안전, 환경·기후)의 통계를 지도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대화형 통계지도** 센서스 통계를 소지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통계주제도



대화형 통계지도

- **살고싶은 우리동네** 원하는 지역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추천 서비스
- **생활권역 통계지도** 관심시설로부터 일정시간 내 도달 가능한 생활권역의 통계정보 제공



살고싶은 우리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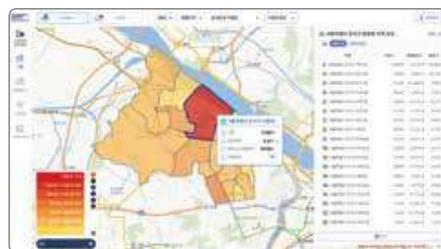


생활권역 통계지도

- **자연재해 통계지도** 자연재해 영향범위 안에 있는 인구, 사업체 등 통계정보 제공
- **기업생태 분석지도** 기업체의 생태지표와 통계분석 정보 및 시계열 추이 제공



자연재해 통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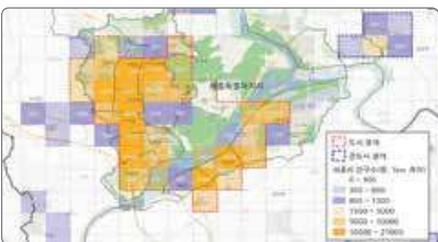


기업생태 분석지도

이용자가 직접 SGIS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유서비스 (Open API)

- **소지역 자료제공** SGIS의 소지역 통계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집계구·격자 단위의 통계 및 경계정보를 파일형태(txt, shp)로 서비스
- **개발지원센터** 이용자가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92종의 Open API 제공



소지역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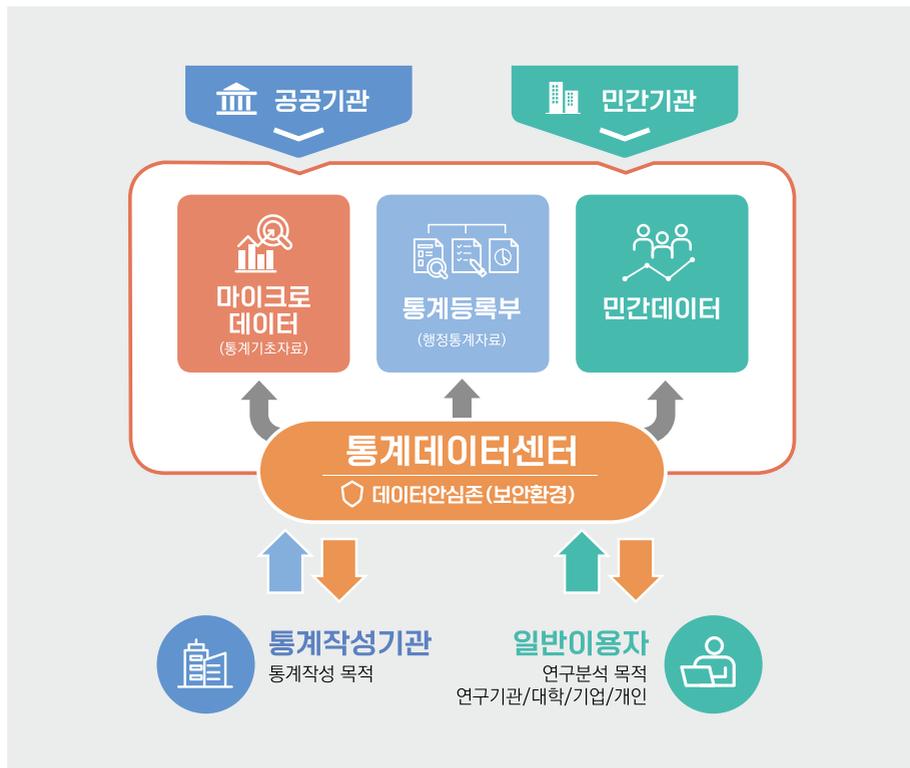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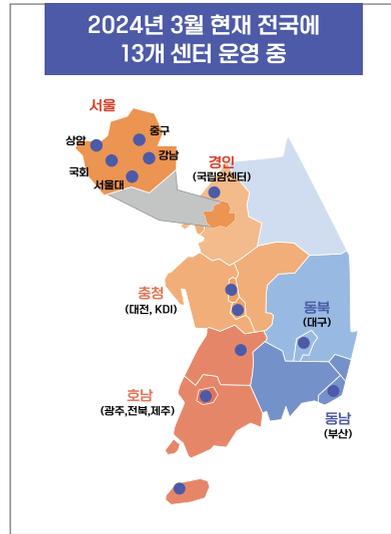


개발지원센터

4. 통계데이터센터

<https://data.kostat.go.kr>

- **통계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통계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구축된 데이터플랫폼 서비스입니다.
- 행정통계자료·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민간자료 등 제공, 데이터 간 연계 지원, 분석전문가 상담 및 지원, 가명정보 결합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입니다.
- 공공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제공 데이터 (‘24.11월 기준)

행정자료	민간자료	기타
(20종)	(35종)	
경제 사회 기업통계등록부(SBR) 사업장기초DB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	경제 사회 카드매출 신용통계정보 인구이동정보 등	SGIS 격자통계 (5종)
인구 가구 인구가구주택통계등록부 청년통계등록부 아동가구등록부 등	인구 가구 유동인구 주거직장인구 방문인구정보 등	행정구역 통계 (1종) 청년·고령인구
		인구·가구·주택·사업체·종사자

서비스 유형

1	2	3	4
데이터 및 분석센터 서비스	주문형 분석 서비스	분석지원 서비스	이용자 교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등록부, 통계기초자료(미이크로 데이터) 및 민간자료 등을 활용한 데이터 연계·융합 분석 데이터 분석 플랫폼(R, Python, SAS, SPSS 등) 제공 SDC 제공자료 및 이용자 반입자료 연계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연계 및 분석하여 그 결과* 제공 *통계청 기준에 맞게 비식별화 처리된 형태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경험이 없는 이용자를 위한 분석전문가의 데이터 분석 지원 자료 이용 상담 및 데이터 분석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 서비스 제공 센터를 통한 자료 연계 분석 사례 공유* *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 활용사례 게시판에서 활용사례집, 기술노트 등 확인 가능 통계데이터센터 분석 사례 이용자 교육

센터 이용절차



데이터 융복합 전문기관 지정 현황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	개인정보안심구역
(‘20.11.27. 지정)	(‘23.7.19. 지정)	(‘24.3.28. 지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여 제공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며, 기업간 데이터 결합 및 가명·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금융 및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데이터와 융합하여 제공	외부와 차단된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으로, 통계목적고유번호, CI 등 다양한 결합기 활용이 가능하고, 가명정보 정기간 보관, 제3자 재사용과 동행번호 등 개인 정보보호 강화 기술 실증이 허용된 공간

5.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 **마이크로데이터(통계기초자료)란?**

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에서 개인정보, 입력오류, 논리오류 등을 수정한 조사개별 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를 말합니다.



제공 데이터 ('23.12월 기준)

- 2023년 12월 기준 21개 주제 369종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통계에 대해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



서비스 유형

<p>다운로드 서비스 온라인분석 서비스</p> <p>MDIS 360종 이상</p> <p>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MDIS의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360종 이상의 국가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p>	<p>원격접근 서비스 (RAS)</p> <p>가상화서버</p> <p>다운로드 서비스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가상화서버에 접속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승인이 필요하며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p>
<p>이용센터 서비스 (RDC, 통합SDC)</p> <p>센터 방문</p> <p>가장 폭넓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RDC 혹은 통합 SDC에 방문하는 서비스로 방문일수에 따른 수수료가 책정되는 유료서비스입니다.</p>	<p>주문형 서비스</p> <p>맞춤형</p> <p>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특별한 유료서비스입니다. 사망원인통계자료와 연계하는 사망원인 연계, 국가승인통계 조사 명부 제공, 통계자료 분석서비스가 있습니다.</p>

서비스 유형별 이용절차

다운로드 서비스	온라인분석 서비스	인가용 서비스	주문형 서비스 ·통계자료 분석서비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다운로드	데이터 추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자료이용	데이터 편집	통계청 심사·승인	통계청 심사·승인
	데이터 분석	수수료 결제	수수료 결제
		자료분석	자료 다운로드

궁금하면 '통계' 클릭!

2024년 12월 20일 발간

남택진 글 | 유정연 그림

발행처 통계청

발행인 이형일

기획 통계서비스기획과

진행 한국통계진흥원

디자인 타라티피에스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전화 042-481-2506, 042-869-2254

홈페이지 <https://kostat.go.kr>



궁금하면
'통계' 클릭!



비매품/무료



9 788958 015314

ISBN 978-89-5801-531-4



통계청

